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고상한 도덕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풍모이다.

아무리 뛰여난 재능과 풍부한 지식,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도덕과 법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면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다.

5학년 《사회주의도덕과 법》 과목에서는 사회주의조국애, 민족과 인민에 대한 헌신,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형법의 초보적인 지식을 배우게 된다.

자기 민족과 인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참된 혁명가의 중요한 풍모이다.

자기 민족과 인민,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는것은 결국 자기 수령을 더 잘 받들어 모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으로 된다.

모든 학생들은 《사회주의도덕과 법》과목학습을 잘함으로써 자기 민족과 인민,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참다운 충신, 훌륭한 애국자로 자라나야 한다.

제1장. 사회주의조국애

제1절. 조국은 삶의 보금자리

조국에는 자기 민족과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부와 령토 등이 있다. 그러나 그런것들이 있기만 하면 다 참된 조국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날에는 아득한 옛적부터 조상대대로 살아오는 곳, 부모의 뼈가 묻힌 고향산천, 들판에는 종달새가 우짖는 곳, 그 정든 곳이 조국이라고 말하여왔다. 그러나 참된 조국은 단순히 나서자란 고향산천이 아니다.

조선예술영화《월미도》에서 대대장은 참된 조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리태운중대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 선조들은 아득한 옛적부터 이 땅에서 살았고 그때에도 종달새는 울었소. 하지만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기 전에야 그게 무슨 의의가 있었단 말이요? 난 그 종달새가 우짖는 곳에서 왜놈의 채찍밑에 뼈가 휘도록 고역살이를 했소. 동무도 그랬지? 그러니 우리에게 조국이란 무엇이겠소? 조국이란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시오.…》

사람들에게 고역과 설음을 안겨주고 가난과 무권리를 강요하는 곳은 나서자란 고향이 있는 나라라고 해도 진정한 조국, 삶의 보금자리로 될수 없다.

진정한 조국은 사람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곳이다. 그러한 조국은 바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사람들에게 참된 삶과 행복을 주는 삶의 보금자리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삶의 보금자리로 되는것은 그것이 인민정권과 사회주의제도,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가 있는 조국이기때문이다.

인민정권과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인민의 참된 삶과 행복을 확고히 보장해준다.

인민정권과 사회주의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나라의 주인으로 살게 되였다.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는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안정된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을 보장해주고있다.

자립경제가 있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필요한 물건들도 제손으로 만들어쓰고있다.

우리 인민은 교육, 과학, 기술, 보건, 체육 등을 발전시켜 자기의 슬기와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해나가고있다.

인민정권과 사회주의제도,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는 오늘의 참된 생활뿐아니라 후손만대의 행복까지도 믿음직하게 담보해준다.

참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인민들에게 오늘의 참된 삶을 주고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이다.

진정한 조국, 삶의 보금자리는 수령이 마련해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품은 곧 수령님의 품이며 수령님을 모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품입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삶의 보금자리는 곧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조국을 찾아주시고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 내 조국을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수호해주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선군혁명령도를 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수 없었을것이고 오늘의 존엄과 행복, 후손만대의 행복에 대하여 말할수 없을것이다.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야말로 우리 인민이 한시도 떨어질수 없고 떨어져서는 못사는 진정한 어머니품, 삶의 보금자리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노래 《그 품 떠나 못살아》를 즐겨부르며 온 세상에 대고 우리 삶의 보금자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라고 목청껏 자랑한다.

자기 삶의 보금자리를 저버리고 해치는 자들은 가장 저주로운 인간추물들이다. 사람은 원래 제 보금자리를 저버리고 해치는 배반자들을 대를 두고 짐승보다도 못한놈이라고 저주하고 증오한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자기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를 배반하는 자식을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은것과 마찬가지로 조국을 배반하는자들을 두고두고 역적으로 저주하고 규탄하였다.

량심과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조국을 끝없이 사랑한다. 특히 조국이 시련을 겪을 때에는 그 누구의 강요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조국과 운명을 같이한다.

만일 그 누가 자기 조국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조국을 배반하고 자기 한몸만 건지려한다면 누구도 그러한 인간을 량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것이다.

참된 인간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어머니조국을 배반하지 않는다.

비전향장기수 고광인선생님은 공화국에서 하루도 살아본적 없고 혈육한점 없었지만 자기의 진정한 조국을 북반부로 여기고 어머니조국앞에 량심과 의리를 다했다.

고광인선생님이 대전감옥에 있을 때 악한으로 소문난 간수부장이 불러내여 취조를 하였다.

《너 아직 이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어? 이북에서 너한테 밥을 주었어 돈을 주었어? 너의 고향은 여기 이남이야. 무엇때문에 계속 고집을 부려? 네가 전향만 하면 우리는 너에게 집도 주고 돈도 다 주겠다. 전향을 안하면 너는 끝장이야.》

고광인선생님은 그자의 가증스러운 상통을 쏘아보며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물론 나는 북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살아본적도 없고 꿈에도 그러한 땅을 밟아본적도 없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신념을 주시였다. 비록 내가 태여난 곳은 여기 남녘땅이지만 나의 진정한 고향, 조국은 어버이수령님 계시는 공화국북반부이다. 나는 우리 수령님과 어머니조국에 대한 신념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 신념은 절대로 저버릴수 없다.》

고광인선생님은 지리산인민유격대시절 공화국북반부출신 대원들을 통하여 인민들의 참된 삶이 꽃펴나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하여 알게 되였고 열렬히 동경하게 되였다. 남녘땅에서 어릴 때부터 사람대접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라난 그는 이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조국이 어디인가 하는것을 알게 되였다.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하였으나 인민의 제도를 세워주시고 꽃피워

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을 진정한 조국, 삶의 보금자리로 심장속에 간직하였기에 고광인선생님은 34년간 억척같이 싸워이기고 그처럼 바라던 소원을 성취할수 있었다. 어머니조국은 고광인선생님을 품에 안아주고 그에게 참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었던것이다.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에서 태를 묻고 자라난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어머니조국앞에서는 량심적으로, 의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준엄한 날이나 평화로운 날이나 자기의 량심에 티가 앉지 않도록, 자기의 의리심에 금이 가지 않도록 자신을 가다듬으며 살아야 조국의 사랑을 떳떳이 받을수 있다.

모든 학생들은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는 바로 사회주의조국의 품,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라는것을 알고 어머니조국을 빛내이기 위해 공부를 더 잘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조국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라나 고향이 아니라 사람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곳이라야 한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이다.》

복습문제

1. 우리에게 있어서 조국이란 무엇인가.
2. 학생들이 오늘 조국앞에 량심과 의리를 다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과외읽기

조국의 딸

공화국영웅 고진히선생님은 어머니조국앞에 량심과 의리를 다한 훌륭한 딸이였다.

리인모선생님의 수기에 있는 고진히선생님의 최후를 회상한 다음과 같은 구절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 어느날 한나산빨찌산출신인 고진히동지가 붙잡혀왔다. 고진히동지는 정찰임무를 받고 광주로 들어왔다가 체포되였던것이다. 취조관들의 혹독한 고문에도 의연히 버티던 고진히동지가 취조를 마치고 류치장에 돌아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그 녀성을 잃고 우리는 슬피 울었다.… 그는 죽었지만 죽음으로써 승리하였다.… 오 조국의 딸이여!》

고진히선생님은 고향 제주도에서 조국해방을 맞이하였다.

고진히선생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정치가 온 조선땅에 펼쳐질 통일의 그날을 위해 한몸 바칠것을 맹세하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지리산인민유격대에 들어가 용감히 싸웠다.

정찰임무를 받고 광주로 들어왔던 그는 변절자의 밀고로 불행하게도 놈들에게 체포되였다. 며칠동안 야수적인 고문과 악형에 맞서 용감히 싸운 그는 애국의 마음을 깨끗이 지키기 위해 자결의 길을 택하였다.

고진히선생님은 생활을 통해 영원한 삶의 품은 조국의 품,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이라는것을 깨달았기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였다.

하기에 그는 조국의 장한 딸로 영생하고있다.

제2절. 사회주의조국은 목숨보다 귀중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생명보다도 더 귀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그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자랑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조국은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그것은 사회주의조국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에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가 아니면 남의 노예가 되여 천대와 멸시를 받는가 하는것이 달려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조국을 지키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인민들이 주인의

권리를 빼앗기고 노예의 처지에 굴러떨어진다.

사회주의조국을 잃으면 착취계급이 국가주권을 틀어쥐고 인민들을 지배하고 억압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다시 착취와 압박을 받는 노예와 같은 처지에 굴러떨어진다.

노예의 처지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

주인의 권리를 착취계급에게 빼앗긴 인민은 천대와 멸시를 받아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데조차 없게 된다. 노예의 운명에 처한 인민들에게 들씌워지는 불행과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다.

이렇게 사회주의조국을 잃으면 인민대중은 주인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사회주의를 하다가 자본주의로 되돌아간 나라 인민들은 노예나 머슴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특히 어린이들의 운명이 제일 엄혹한 상태에 빠져있다.

현재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는 고아가 무려 3만 3천여명이나 되며 약 10만명의 불구가 된 어린이들이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지난날에는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아래 자그마한 근심걱정도 없이 자라나던 어린이들이 자본주의가 복귀된후 한해에도 수천명씩이나 외국으로 팔려갔다. 이국땅에 팔려간 어린이들은 가혹한 로동과 학대의 대상으로 되여 피여나보지도 못한채 죽어가고있다고 한다.

자본주의가 복귀된 어느 한 나라의 출판보도물들에는 《하수도구멍아이들》이라는 말이 자주 실리고있다. 어린이들이 하수도구멍안으로 기여들어가 보금자리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이 수두룩하여 백화점앞에도 있고 시장이나 식당에도 모여든다. 《자동차청소를 해주겠다.》고 하는 아이들, 먹을것을 구걸하는 아이들, 병에 걸려 길가에 쓰러져있는 아이들이 많으나 누구도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처럼 사회주의조국을 잃으면 인민들은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사회주의조국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던 모든것을 착취계급들에게 빼앗기고 불행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

사회주의조국을 잃으면 인민들을 위하여 복무하던 모든것이 착취계급의 손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인민들은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도 행복하게 살수 없고 불행과 절망에 빠지고만다.

사회주의를 버린 어느 한 나라의 중학교 학생은 자기 나라의

신문편집부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오늘의 혼란과 무법천지가 래일에 대한 좋은것이란 하나도 기약해주지 않기때문에 나는 사는 보람이 없다.

나는 희망과 꿈, 리상, 가장 중요하게는 조국의 공민이라고 불러볼 권리, 말하자면 휘황한 모든것을 다 빼앗겼다.

나는 날개없는 새와 같은 감이 든다.…

이전에는 9월 초하루가 되면 어머니조국이 전체 어린이들을 반겨 학교문을 활짝 열어놓았고 국가를 장중하게 울리면서 우리들의 심장마다에 긍지와 래일에 대한 확신을 가득 채워주군 하였지만 올해에는 그런 명절이 없었다.…》

이처럼 사회주의조국을 잃으면 마음껏 누리던 행복을 빼앗기게 되고 래일에 대한 희망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

사회주의조국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으로 인민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던 아름다운 도덕이 사라지고 온갖 사회악이 범람하게 된다.

사회주의조국을 잃으면 인간의 아름다운 도덕이 깡그리 없어지고 만다.

자본주의로 되돌아가면 사람들속에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개인리기주의사상이 되살아나게 된다. 사람들이 개인리기주의에 물젖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고 제돈주머니만 불쿠는데 환장이 된다. 돈에 환장하면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협잡에 이골이 나게 되여 강도질도 서슴지 않고 살인범죄까지 저지르게 된다.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는 살인강도집단이 판을 치고 온갖 사회악이 범람하여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비도덕의 극치가 조성되였다.

이처럼 사회주의조국을 잃으면 한집안식구처럼 친근하고 화목하게 살던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은 다 없어지고 인민들은 범죄의 희생물이 되여 불행속에 빠지게 된다.

아무리 수천수만의 개별적인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해도 사회주의조국을 잃으면 그 생명은 죽은 목숨으로 되고만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조국은 목숨보다 귀중하고 또 귀중하다.

목숨보다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빛내이는것은 우리 청년학생들의 마땅한 도리이다.

사회주의조국은 하나이고 사람들의 생명도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바치는 것은 무한한 영광으로, 자랑으로, 행복으로 된다.

그것은 자기들에게 오늘의 행복과 래일의 희망을 안겨준 사회주의조국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때문이며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빛내이는데 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응당한 도리로 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친 사람들은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

리수복영웅은 18살 꽃나이에 조국이 생명보다 귀중함을 체득하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영웅이 남긴 시는 조국을 위하여 바친 생명과 청춘은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하다는것을 보여준다.

모든 학생들은 사회주의조국이 생명보다 귀중하다는것을 알고 조국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사랑하는데서부터 애국심이 자라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와 신념이 생기게 된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다.》

복습문제

1. 왜 사회주의조국이 목숨보다 귀중한가.
2.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것이 왜 영광과 행복으로 되는가.

과외읽기

영웅과 애솔포기

가렬처절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리수복영웅이 속한 부대가 적들의 파도식공격을 물리치고났을 때였다.

하루에도 수만발의 폭탄과 포탄이 터져 바위가 부서져 가루가 되고 고지가 낮아지는 속에 마지막애솔포기마저 뿌리채 뒤집혔다.

이것을 본 리수복영웅은 자기의 살점이 떨어져나간것처럼 가슴아파하였다. 흙먼지를 헤치고 애솔나무를 안아든 그는 잎새에 볼을 쓸며 한동안 서있었다. 그러다가 애솔나무를 도로 내려놓고 전호가 양지쪽에 웅뎅이를 파고 거기에 애솔나무를 옮겨다 심었다.

두손으로 흙을 한웅큼 쥐여 탄피나 파편쪼각들을 골라내고 나면 한줌도 안되는 흙을 모아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다져놓고는 샘물터에 달려가 철갑모에 물을 퍼다 정성껏 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가렬처절한 싸움터에서 그렇게 한다는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아끼고 사랑하였기에 리수복영웅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서슴없이 바치였던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자기 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이라고 한것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사회주의조국을 표현한것이라고,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서슴없이 바치겠다고 한것은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것이라고 평가하시였다.

제3절. 항일혁명투사들의 조국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공로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모두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였다.

조국애란 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국심이다.

애국심은 자기 조국강토와 력사와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자기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애착심, 자기 부모처자에 대한 애정에서도 표현된다.

항일혁명투사들이 발휘한 조국애가 진정한 애국심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간직한 조국애는 인민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진정한 애국심이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근로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여 다같이 잘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21(1932)년 가을부터 온 동만땅에 《쏘베트열풍》이 휩쓸던 시기 유격구인민들이 그것을 달가와하지 않는다는것을 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왕청5구에 가시여 가야허지방농민들과 담화하시면서 어떤 정부를 세우는것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다. 한농민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마음고생을 안하고 살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부만 세워주면 원이 없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쏘베트정부를 대신하여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려한다고 하시면서 이 정부는 조국을 사랑하고 겨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그들의 숙망을 풀어줄것이라고, 여러분들의 숙망이 무엇입니까? 땅을 가지는것, 로동의 권리를 가지는것, 자녀들을 교육시키는것, 인민이 평등하게 사는것, 인민혁명정부는 이 모든 소원을 죄다 풀어줄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지도밑에 탄생한 인민혁명정부는 인민이 주인이 된 정부로서 해방후 우리 인민정권을 탄생시킨 맹아였고 원형이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주고 인민의 리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정치를 펼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로동의 권리를 주고 누구나 무상으로 공부하며 치료받을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서로 돕고 이끌어주고 위해주며 받들어주는 사회를 건설하였다.

이것은 항일혁명투사들만이 창조해낼수 있었던것이다.

인민혁명정부가 선 유격구는 인민들이 수천년을 두고 꿈꾸어오

며 바라던 세상이였다. 그래서 항일혁명투사들은 이 유격근거지를 끝없이 사랑하였으며 이를 지키기 위하여 청춘도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인민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것을 굳게 믿고 겨레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였다.

참으로 항일혁명투사들의 조국애는 인민들모두가 주인이 되고 다같이 잘살고 서로 돕고 이끌며 사는 화목한 나라를 세우려는 진정한 조국애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일제를 때려부시고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웠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우선 자신의 안락과 가정의 행복도 다 바쳐 싸웠다.

항일혁명투사들에게도 부모처자가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면 편안할수 있는 길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편안과 안락을 찾는것을 죄되는 일로 여기고 조선의 아들딸로서 용약 항일전에 참가하였다.

그들가운데는 젖먹이어린애를 늙으신 부모님과 이웃에 두고 온 녀성투사들과 부모처자를 고향에 두고온 투사들도 많았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걸음마다 뒤따른 시련도 슬픔도 죽음까지도 영광으로 생각하며 조국과 인민, 부모처자들, 후대들을 위하여 일제를 때려부시는 싸움에 나섰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또한 총대를 틀어쥐고 조국을 찾기 위해 청춘을 바쳤다.

지난날에도 조국을 찾는 싸움을 한다면서 독립군을 비롯하여 총을 메고나선 무장부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군자금이나 모으고 일제군경들을 몇놈 죽이는것이 고작이였다. 진정한 투쟁방향도 세우지 못하고 혁명대오도 하나로 묶어세우지 못하다나니 아까운 희생만 내고말았다. 일제의 토벌이 강화되자 총대마저 땅에 묻어버리고 《우국지사》로 한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항일혁명투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총잡고 싸움판에 뛰여들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총을 잡고 일제와의 싸움에 나설 때 고생이나 죽음보다 오직 조국 하나에 대해서만 생각하였다.

일제놈들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였고 때로는 총기장보다 더 작은 10대의 애숭이소년들도 무장대오에서 싸우겠다고 유격대를 찾아오군 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총을 잡고 싸우는 길이 일제를 때려부시고 고향과 조국을 하루빨리 찾는 길임을 잘 알았기에 스스로 군대에 입대하였고 끝까지 무장대오에서 싸웠던것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또한 가장 엄혹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기나긴 세월 싸워오면서도 조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백두밀림에서 한두해도 아니고 수십년간 상상을 초월하는 악조건을 이겨내며 일제와 싸웠다. 가장 가혹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장구한 기간 조국을 위하여 싸운다는것은 값비싼 희생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항일혁명투사들은 피어린 전투와 끊임없는 행군, 혹한, 맹물로 끼니를 에워야 하는 등 고생을 모두 달게 여기면서 조국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사랑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밤이면 우등불가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지으신 《사향가》를 부르면서 고향산천을 그리워하였고 조국에 진군하면 흙과 진달래를 그러안고 볼에 비비며 놓을줄 몰랐다.

조국의 산과 강,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였기에 투사들은 조국의 흙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나 조국을 그려보군 하였다.

이것은 항일혁명투사들의 심장에서 끓어넘친 조국애가 얼마나 뜨겁고 열렬하였는가를 보여준다.

가정의 행복도 청춘도 아낌없이 바치며 총대를 틀어쥐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조국을 끝없이 사랑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정신이 바로 진정한 애국심이다.

모든 학생들은 진정한 항일의 애국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의 고귀한 넋과 불멸의 위훈을 절대로 잊지 말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복습문제

1. 항일혁명투사들이 그려본 조국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2. 항일혁명투사들이 뜨거운 조국애를 간직하고 어떻게 싸웠는가.

과외읽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심어주신 조국애

주체26(1937)년 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대원들과 함께 장백현 지양개에 도착하시여 보천보전투를 진행할 준비를 갖추고계시던 어느날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우등불을 피워놓고 조국땅을 그리며 고향집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우고있었다. 이때 사령부천막밖으로 나오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등불가에 앉으시며 무슨 재미나는 이야기들을 하고있었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대원이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있었다고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고향은 참 좋은곳이라고 하시며 평양과 만경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평양은 고구려의 도읍지로서 우리 나라의 고대문화를 자랑하는 고적과 유물이 많은 곳이라고, 이런 고적들과 유물들은 인류문화의 보물고에 크게 기여하고있다고, 평양의 모란봉은 마치 모란꽃처럼 기묘하게 생겼다고, 우리의 선조들은 모란봉을 사랑하여 이곳을 꽃이 만발하고 록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동산으로 가꾸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바로 이 모란봉이 지금은 일제놈들의 술놀이터로 되고있으며 고역에 시달리는 인민들은 그곳에서 휴식조차 못하고있다고 가슴아파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꼬마대원》이 만경대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자 웃으시며 만경대는 내가 자란곳이라고, 동무들도 다 제고향을 사랑하듯이 나도 만경대를 사랑한다고,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모두 고향사람들의 뜻과 지성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깊은 감회속에 조국을 그려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조선의 현실과 인민들이 일제놈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만난을 극복하고 일제와 싸워서 반드시 조국을 해방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망국노의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우등불가에서 대원들에게 조국애를 심어주시였다.

그리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은 불타는 조국애를 안고 일제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수 있었으며 진정한 조국애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제4절. 학교와 향토에 대한 사랑

조국에는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고 재부가 있다.

조국의 한부분인 고향땅과 나라의 재부인 학교에 대한 사랑은 조국애의 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조국애는 학교와 향토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대상을 사랑하는 감정을 포함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고향에 대한 사랑, 부모형제에 대한 사랑, 친우들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싹트고 자라나게 됩니다.》

조국애는 자기 고향과 학교, 자기 부모형제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싹트고 자라나게 된다.

자기가 공부하는 학교, 자기 고향마을과 산천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국애가 나온다. 자기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나라의 역군으로 믿음직하게 키워주는 학교, 참다운 소년단원으로, 청년동맹원으로 자라나도록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부모님들과 학교의 선생님들, 선배들과 친구들이 살고있는 정다운 고장을 귀중히 여기는 애착심으로부터 조국을 사랑하는 감정이 뿌리내린다. 학교와 향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곧 조국애의 싹으로 된다. 매개 사람들이 가슴속에 자기 학교와 향토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고있다면 그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것으로 된다.

자기가 나서 자라는 고향과 학교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서 조국애는 커지게 된다.

인간의 성장은 그의 가슴속에 간직되여있는 학교애와 향토애가 자라나는것과 동반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새 세기의 첫 영웅으로 높이 내세워주신 조선인민군 군관 김기봉영웅은 조국애가 누구보다 열렬한 애국자였다.

나라를 사랑하는 김기봉영웅의 마음은 학교시절부터 가슴속에 싹텄다. 중학교때에도 그는 동무들과 함께 학교주변에 수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가 된 그의 가슴속에서는 학생때부터 키워온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더욱 불타올랐다.

김기봉영웅은 병사들과 함께 2만 5천여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

무들을 심었고 몇해동안에 100여정보의 산들을 푸르게 하였다.

이처럼 열렬한 조국애를 지녔기에 김기봉영웅은 어느 한 일대에 산불이 났을 때에도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 불을 끄고 50여정보의 귀중한 산림을 지켜냈다.

이렇듯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학교와 향토에 대한 사랑에서 싹트고 자라나서 무성하게 아지치고 열매맺게 된다.

모든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조국을 사랑하기 위하여 학교와 향토에 대한 사랑의 마음부터 키워나가야 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

학생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인민군대에 입대할수도 있고 사회에 진출할수도 있다. 그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졸업한 학교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모교를 생각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이 바로 선생님들의 모습이다.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에게 다방면적인 지식을 체득시키기 위해 밤도 같이 새우고 꾸지람도 많이 해주신 선생님들은 일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스승들이다.

학교의 스승들이 기울여주신 사랑이 있었기에 학생들의 앞날이 있는것이고 영웅도 일군도 박사도 인민배우도 나오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교원들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손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간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승들의 사랑과 기대를 잊지 않는다.

모교를 생각하면 학창시절에 우정을 맺은 동창생들과 하급생들이 반드시 떠오른다. 비록 교정을 떠나 각곳에서 생활한다고 하여도 학우들의 모습과 우정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다. 우정은 모교에 대한 사랑을 더해주고 맡겨진 혁명임무에 대한 성실성을 심어준다.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도 서로의 우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학우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깊이 관심한다.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서로 고무지지해주고 과오를 범하였을 때에는 가슴아파하며 고쳐주기 위해 애를 쓴다. 이것은 학창시절부터 학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자라났기때문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자면 우선 자기가 공부하던 교실의 책걸상과 실험설비, 운동장의 체육기재 등 학교의

모든 비품들을 아끼고 귀중히 다루어야 한다.

또한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사랑을 고맙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동무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쳐 나서야 한다.

향토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야 한다.

향토는 자기가 태여나 자라며 생활하는 고향땅이다.

자기 고향마을, 자기 일터에 대한 사랑이 향토애이다.

향토애는 저절로 자라나지 않는다.

학생들이 매일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주변과 교실 등을 깨끗이 거두고 늘 관리하는것은 향토애의 표현이다.

나무를 심거나 도로, 운동장을 정리하는 등 학교와 마을을 위해서 진정을 바치는것이 향토애를 키워가는 과정으로 된다. 제가 덕을 볼것이 없다고 해서 래일은 다른 사람이 할것이라고 대충한다면 그 후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향토꾸리는 사업을 실속없이 적당히 수행하고도 마음편히 생활하는 사람은 후날 량심이 깨끗치 못하다고 비난을 받게 된다.

향토를 위하는 마음이 깨끗치 못하면 그것이 쌓이고 자라나서 조국을 위하고 받드는 마음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간직하고 성실하게 진심을 바쳐나가는 사람이 조국애를 지닌 사람으로 될수 있다.

학생들은 향토를 보다 발전되고 문명한 고장,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는 사업에 발벗고 나서며 시작부터 마감까지 성실하게 량심적으로 일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말로 대답할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국과 인민앞에 서는 애국자의 자세이다.》

《조국을 위하여 해놓은것도 남길것도 없는 사람은 한생을 헛되게 보낸 가련한 인간이다.》

복습문제

1. 조국애와 학교애, 향토애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2. 학교와 향토에 대한 사랑을 키우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외읽기

《청년림》에 량심을…

수안군 남정중학교 전혜성동무는 어느날 이른 아침에 삽을 들고 《청년림》에 올랐다. 지난해 가을 학교 학생청년들이 달라붙어 겨울나이 대책을 빈틈없이 해놓은 덕에 《청년림》의 나무들은 한그루의 허실도 없었다. 흐뭇한 마음으로 《청년림》을 다시한번 둘러보던 그의 눈길은 나무를 심지 않아 비여있는 땅에 머물렀다. 급히 달려가 보니 여러개의 크고작은 돌들이 박혀있어 나무를 심지 못하고 내버려둔 땅이였다.

(저 돌들을 다 파내자. 그러면 여러 그루의 나무를 더 심을수 있지 않겠는가?)

돌이 얼어붙기까지 해서 힘들게 곡괭이질을 하는 그의 등에서는 땀이 비오듯하였다.

어지간히 지친 그는 맥을 놓고 주저앉아 이 돌밭에 나무를 심지 못하고 내버려둔것이 이래서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자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먼 후날 푸른 숲이 설레일《청년림》에 비여있을 그 자리가 깨끗한 자기 량심에 지울수 없는 그늘을 얹어줄것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쳤다. 저도모르게 일어난 그는 머리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혁명선배들의 피와 넋이 어린 이 땅에 나무 한대라도 더 심어 조국의 재부를 기어이 늘여가자!)

그는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고 더 힘차게 곡괭이질을 해서 끝내 그 돌들을 다 파냈다. 자기의 행동과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었으나 《청년림》에 여러 그루의 나무를 더 심을수 있다는 기쁨으로 해서 그의 가슴은 마냥 부풀어올랐다.

제5절. 조국통일은 최대의 애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입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최대의 애국으로 된다.

조국통일이 최대의 애국으로 된다는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많은 행동가운데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가장 최대의 애국투쟁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애국적행동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중에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이 가장 열렬하고 빛나는 최대의 애국으로 된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최대의 애국투쟁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조국의 가장 큰 아픔을 가셔내고 민족의 가장 절절한 념원을 풀어주는 투쟁이기때문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나라의 가장 큰 아픔을 가시는 투쟁이다.

한 나라에 있어서 제일 큰 아픔은 둘로 갈라져있는것이다.

하나의 강토가 두동강나고 한혈육이 갈라져 오도가도 못하며 문화도 재부도 자원도 둘로 나뉘여져 남의것처럼 되여있는것은 아픈 상처가운데서도 제일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처로 된다. 사람의 몸이 두동강나면 살수 없듯이 나라가 두동강나면 한 겨레가 갈라져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불행과 고통이 계속되면 나라와 민족이 겪는 아픔은 더욱 커지게 된다.

조선은 둘로 갈라지면 살지 못하는 유기체와 같다.

우리 조국은 예로부터 한민족으로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잇고 수수천년 살아오던 나라이다.

노래 《우리는 하나》의 가사에도 있는바와 같이 우리의 민족도 피줄도 이 땅도 하나이며 언어도 문화도 력사도 하나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와 민족은 우리 나라, 우리 민족밖에는 없다.

그런데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져 반세기이상이 지나도록 고통과 불행을 당하고있다.

강토가 허리잘려 혈육이 북과 남으로 헤여진것은 정말 참을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다. 조국의 남쪽땅에는 외세가 틀고앉아 핵무기고로 만들고 동포들을 멸시하고 살륙하며 력사와 언어, 생활양식까지 더럽히고있기에 분렬의 고통은 더더욱 커가고있다.

이 분렬의 고통을 가셔내는것은 애국중의 최대의 애국으로 된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민족의 가장 절절한 념원을 풀기 위한 투쟁이다.

조선민족이 오늘 가장 절절히 바라는것은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는것이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나라가 분렬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반세기 이상 바라고 또 바라온 소원이며 갈망이다.

조선민족의 최대의 소원을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신분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시였다.

판문점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통일념원이 새겨져있는 친필비가 세워져있다.

《**김일성**
1994.7.7》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져있는 이 비에는 분렬의 고통을 끝장내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려고 수많은 조국통일방안을 내놓으신 수령님의 로고가 깃들어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안고오신 조국은 둘로 갈라진 나라가 아니였으며 20성상 혈전만리를 헤쳐오신것도 둘로 갈라진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였다.

하기에 외세에 의한 조국의 분렬은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아픔이시였고 조국통일은 가장 절절한 소원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심장은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고동치시였고 마지막 친필도 조국통일을 위한 문건에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였던 조국통일의 념원은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실현되고있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북남사이의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있으며 북과 남 겨레들의 공동행사들이 각 방면에 걸쳐 다양하게 벌어지고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이 한걸음한걸음 진

척될수록 력사적인 그날을 빨리 앞당겨오려는 민족의 념원은 더욱 뜨거워지고 절절해지고있다.

조국통일에 헌신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조국통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것은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의 모든 성원들의 마땅한 도리로 된다. 이 땅에서 태여나 어머니조국의 젖줄기를 자양분으로 하여 자라난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의 강요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숭고한 도덕의리감을 안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

더우기 내 나라, 내 조국의 품속에서 배움의 권리, 치료받을 권리, 로동의 권리를 가지고 참된 인간, 혁명가로 자라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에 헌신하는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보답으로 된다.

비전향장기수 손성모선생님이 쓴 글의 한 대목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있다.

《놈들은 나를 고문실로 끌고가 전기고문의자에 비끄러맸다. 온몸에 전류가 찌륵찌륵 흐를 때마다 눈알이 튀여나오고 장기와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는듯 했다.

다음날 또 주전자로 고추가루물을 내입과 코에 부어넣었다. 나는 수년동안 그렇게 악몽같은 고통을 당했다.

나는 모진 고문에 죽을수도 있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내가 조국통일사업에 나선것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서가 아니였다. 죽어서 영웅이 되고 살아서 출세하자고 나선것도 아니였다. 나를 키워주고 공부시켜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인간으로서의 의리와 도리를 다하자고 나선것이였다.》

조국통일에 헌신하는것이야말로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로 된다.

조국통일에 무관심하고 제살궁리만 하는 사람은 도덕의리심도 애국심도 없는 사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애국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조선민족으로서의 자격도 조선에서 살 자격도 상실한 목석이라고 하시였다.

조국통일에 무관심하고 제살궁리에만 돌아치는 사람은 조국을

사랑하는 감정이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 조국을 사랑하는 감정이 메마른 사람에게서는 도덕의리에 맞는 행동이 나올수 없다. 조국통일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오늘의 현실을 외면한 사람은 도덕의리를 저버린 비렬한 인간으로서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조선민족으로서의 자격도 잃고 통일된 조국에서 살 자격도 상실한 목석이다.

조국통일에 한몫하는것은 모든 학생들의 최대의 임무이다.

모든 학생청년들은 최대의 애국심을 간직하고 조국통일투쟁에 한몫 할수 있도록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조국통일투쟁에서 한몫 하자면 무엇보다도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과학기술적인 능력이 있어야 조국이 맡겨주는 일감을 척척 해제낄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모든 정치사상과목의 내용에 정통하여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콤퓨터지식을 비롯한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도 잘 배워 강성대국건설에 쓸모있는 인간으로 자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조국통일투쟁에 한몫 하자면 다음으로 신체단련을 끊임없이 하여 일당백의 장수힘을 키워야 한다. 아무리 조국통일에 이바지하고싶어도 육체적능력이 없으면 쓸모없는 인간으로 되고만다.

몸단련을 정상적으로 하여 장수힘을 키워야 한다.

학생들은 붉은청년근위대훈련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군사를 성실히 배워 군사기술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학생들은 조국통일위업에 한몫 단단히 할수 있게 자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복습문제

1. 조국통일은 왜 최대의 애국으로 되는가.
2. 조국통일투쟁에서 도덕의리를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2장. 민족과 인민에 대한 헌신

제1절.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입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무엇보다도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다.

민족은 같은 피줄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조선민족은 지금으로부터 반만년전에 단군을 시조로 하여 나라를 세우고 위력을 떨쳐온 위대한 민족이다. 특히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켜 우수한 민족으로 이름날렸다.

한 민족이 위대하자면 물론 력사도 깊어야 하고 경제와 문화도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위대한 민족으로 되게 하는 기본으로 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는 조선민족을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말할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이 긍지와 자부심은 세상의 그 어느 민족도 가지고있지 못하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있는 위대한것이다.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서 기본은 한 세대에 두분의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이다.

한 민족의 위대성은 그 민족을 령도하는 수령에 의하여 규정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은 우리 민족의 수령이실뿐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가장 으뜸가는 위인이시다.

한 민족이 자기 력사에 한분의 훌륭한 령도자를 모시는것도 아주 드문 일인데 우리 민족은 가장 위대한 수령을 두분이나 모시였다.

참으로 우리 민족은 가장 위대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고 위대해진 민족이다.

조선민족은 한때 지도에서 빛을 잃고 이름마저 빼앗겼던 민족이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칠성판에 올랐던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심으로써 비로소 구원될수 있었다. 미제가 일으킨 전쟁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이 위기에 처하였던 1950년대에 조국을 지켜주신분도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였다.

1990년대말- 2000년대초에 주체의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미쳐날뛰던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서 조선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신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핵의혹》과 《핵사찰》책동을 선군의 위력으로 짓부시고 공화국의 자주권과 나라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을 대를 이어 모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 제일 위대한 민족으로 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였다.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시는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처럼 위대한 사상은 없다.

그전에도 인민대중을 위해주는 사상은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처럼 우리 인민만이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지는 못하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웠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오늘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나라들에 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조직들이 무어진것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가장 위대한 사상이라는것을 뚜렷하게 증시해주고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받아들이고있는 나라들이 더욱 늘어나고있는 현실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제일이라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도록 한다.

이렇듯 우리 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가지고 살며 혁명한다는데 있다.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무적필승의 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군대를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과 민족을 보위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조선인민군처럼 세상에 가장 강유력한 군대는 없다. 조선인민군은 우리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는 주력군으로서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나서고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하고 그 모범으로 전체 인민들을 이끌며 무적강군의 위력을 떨치고있다. 조선인민군앞에서는 지구상의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맞서지 못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놈들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소동을 피우지만 우리 군대의 위력앞에서는 벌벌 떨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군대가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은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서 매우 큰 자리를 차지한다.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 인민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것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다 자기의 사회제도를 가지고 살고있다.

그러나 모든 사회제도가 다 좋은 사회제도는 아니다.

자본주의제도는 인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못살 가장 나쁜 사회제도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이다.

왜냐하면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주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보장해주며 모든것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기때문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우리의 지향과 요구대로 건설하였으며 철두철미 근로대중에게 온갖 자유와 행

복을 보장해주는 사회로 발전하고있다.

이런 사회주의제도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살고있는데서 나온것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다음으로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이다.

민족의 위대성은 계속 빛내여나가야 한다.

민족의 위대성은 저절로 빛내여지거나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민족이 위대하다고 자랑만 하여서는 민족의 위대성을 만방에 떨칠수 없다.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계속 빛내여나가자면 자기 민족의 위대성을 자신이 빛내여나가려는 높은 자각을 가져야 한다.

조선민족의 위대성은 민족을 이루는 개개의 성원들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민족의 위대성을 빛내여나가는것은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다.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자기 민족의 위대성을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조선민족의 한성원이라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을 안고 자기 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한다.

그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 민족이 제일 위대하다는 긍지를 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해도 위대한 조선민족이라는것을 당당히 보여주어야 한다.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계속 빛내여나가자면 강의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민족의 위대성을 빛내이기 위한 투쟁의 길에는 난관과 시련도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조선민족을 침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런 놈들의 침략책동을 물리치고 조선민족의 위대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그 어떤 애로와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의 위대성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려는 강철같은 의지를 가져야 한다.

강철같은 의지력은 결심을 굳게 다지고 맹세를 열백번하는것으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다. 의지력은 학습과 생활의 모든 계

기들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제때에 잘해내는 과정에 굳게 다져지게 된다.

모든 성원들이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더욱 빛내이려는 자각과 각오를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더 높이 발현될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것을 알고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빛내일 의지를 키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조국과 민족을 떠나서 인간의 참된 삶이란 있을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떠난 개인의 운명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김일성조국이며 우리 민족은 김일성민족이다.》

복습문제

1.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란 무엇인가.
2. 조선민족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는가.

제2절. 조상전래의 풍습

조상전래의 풍습은 오래전에 선조들이 창조하여 대대로 전해내려오면서 생활속에서 굳어진것이다. 풍습은 미풍량속이라고도 한다. 즉 전통적으로 전해내려오는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방식이라는 뜻이다.

조상전래의 풍습을 모르는 사람은 참다운 애국자로 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성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고 조상전래의 풍습도 인민들의 생활감정도 모르는 사람은 참다운 혁명가, 애국자가 될수 없습니다.》

조상전래의 풍습을 모르면 우선 민족성을 지켜낼수 없게 된다.

민족성은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이다.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지켜내는 사람만이 애국자로 될수 있다. 민족성을 무시하고 지켜내지 못하면 민족의 우수한 특성이 점차 사라지고 민족 그 자체가 다른 민족성원으로 흡수되여버린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는 자기 인민의 민족성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고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조상전래의 풍습에는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이 매우 진하게 슴배여있다. 풍습은 대단히 오랜 옛적에 선조들에 의하여 창조되였기때문에 거기에는 조상들의 감정, 취미, 지향 등이 담겨져있다.

민족의 슬기와 우수성이 깃들어있는 풍습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애국자로 되지만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애국자라고 말할수 없다.

조상전래의 풍습을 모르면 또한 인민들속에 들어갈수 없고 겨레를 사랑할수 없다.

조상전래의 풍습은 인민들속에 있다. 인민들은 조상전래의 풍습대로 생활하면서 온갖 재부들을 창조하고 로동과 휴식을 즐긴다.

조상전래의 풍습들에 인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깃들어있고 인정미와 례절, 기쁨과 웃음이 살아있다. 인민들은 바로 조상전래의 풍습을 존중하고 스스로 지키면서 소박하고 깨끗한 자기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오고있다.

그러므로 인민들의 생활속에 들어가자면 조상전래의 풍습을 잘 알고 의식적으로 지켜야 한다. 인민은 자기들이 존중하고 지켜오는 풍습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겨레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들을 사랑하자고 해도 민족적풍습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는것이 몸에 배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인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대중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참된 애국자로 될수 있다.

《량민보증서》에 대한 이야기는 조상전래의 풍습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인민들속에 쉽게 들어갈수 있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애국자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26(1937)년 3월 경애하는 수령님으로부터 지하공작임무를 받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장백현 하강구 도

천리에 내려가시여 농사일에 몸을 잠그시면서 마을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고 마을의 집이름을 한주일사이에 다 외우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마을의 좌상로인들을 무척 존경하고 우대하시면서 그 지방 풍습대로 생활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며칠동안 절을 하고 받는 련습을 하시고 밤마다 우물가에 나가서 물동이를 이는 법과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는 동작도 숙달하시였다. 민속명절을 앞두고는 여러날 밤 그네뛰는 련습도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인민들을 정든 이웃을 대하듯 허물없이 그리고 무한히 존중하시고 례절있게 대하시였다. 지나가는 길에 잠간 들렸던 집에서도 그냥 앉았다가 일어서는 법이 없이 나무도 패주고 물도 길어주고 방아도 찧어주시였다. 마을사람들을 위해 바치시는 김정숙어머님의 정성은 참으로 돌우에 꽃이라도 피울수 있으리만큼 지극하시였다. 이 과정에 로인들이 김정숙어머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마을사람들모두가 《우리 옥순이》라고 사랑과 믿음으로 부르게 되였다.

그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뜻하지 않게 적들에게 체포되게 되시였다. 그때 경찰서장은 500명분의 《량민보증서》를 작성해오면 그를 석방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경찰서장은 그것을 실현할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200여호밖에 안되는 마을에서 사람들모두가 《량민보증서》에 서슴없이 도장을 누르게 할수 있은것은 김정숙어머님께서 인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셨기때문이다.

겨레와 민족을 사랑하는 참된 인간이 되려면 조상전래의 풍습을 잘 알고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민속명절을 즐겁게 쇠고 민속놀이를 장려하여야 한다.

일년 열두달을 헤아려보면 민속명절이 적지 않다. 설명절을 크게 쇠고 정월대보름, 추석(한가위) 등 민속명절을 다채롭고 즐겁게 보내는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이였다. 이런 풍습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더욱 꽃펴나고있다.

학생들은 매개 민속명절들의 유래와 그 의미도 잘 알아야 하며 지난날 인민들이 명절놀이를 어떻게 진행하였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속명절들을 다채롭고 의의있게 지내기 위한 사업도 잘 짜고들어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띄우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썰매타기, 윷놀이, 장기, 그네뛰기, 씨름 등 놀이를 많이 조직하여 동네와 거리가 흥성거리게 하고 민속명절분위기를 한껏 돋구는데서 학생들의 몫은 크다.

학생들은 다음으로 동방례의지국에서 사는 사람답게 례의도덕을 잘 지키고 몸차림에서 민족적풍습을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동방례의지국으로 찬양받아왔다.

례의도덕을 잘 지키는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이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늙은이를 존대하며 이웃들사이에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지내는것은 오랜 옛날부터 전해내려온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도덕품성이다.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고 부모들과 선생들을 존대하며 제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성의껏 대접하는것도 민족적인 풍습이다. 이와 함께 서로 만났을 때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것도 조선민족의 고유한 인사법이다. 뿐만아니라 처녀들이 머리를 길러 외태나 쌍태를 땋고 고운 댕기를 다는것도 꽃계절에 봉선화로 손톱을 물들이고 들놀이를 나가 꽃모자를 만들어 쓰며 즐기는것도 옛날부터 즐겨오던 풍습이였다.

오늘 녀성들의 조선옷은 고상하고 순박하며 부드러운 조선민족의 감정정서를 잘 표현하는 민족옷차림으로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있다.

학생들은 로인들과 스승들, 이웃들을 대할 때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는 례의도덕을 잘 알고 그것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조선식절법도 의식적으로 지켜야 한다.

녀학생들이 외태머리, 쌍태머리를 즐겨하고 녀성들이 조선옷을 입는것도 장려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다음으로 민요를 많이 부르고 민족음식을 즐겨먹을줄 알아야 한다.

민요와 민족악기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민요를 많이 알고 항상 즐겨부르도록 하여야 한다. 민요는 우리 민족이 제일 사랑하고 흥취나게 부르는 대중가요이다.

민요를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사람은 조선민족의 고유한 감정정서를 체험할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혁명적인 노래들과 함께 민요를 많이 알고 대중적인 모임장소와 민속놀이터에서 민요를 많이 불러야 한다. 이와 함께 가야금, 저대, 퉁소를 비롯한 민족악기를 사랑하고 다룰줄 알아야 한다.

민족음식도 다양하게 만들어 먹으며 즐기는 식성을 키워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문명한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조선사람의 민족적특성과 구미에 맞는 다양한 민족음식들을 많이 만들어먹었는데 그 맛과 향기, 모양과 색갈이 독특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만들어온 고유한 민족음식들을 다 찾아내여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문명하게 하는데서뿐아니라 사람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고 애국심을 심어주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였다.

조선민족음식은 우리 인민의 체질적특성과 생활환경에 맞게 창조되여 오랜기간 발전풍부화되여온것이다.

조선민족음식은 다종다양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건강증진과 장수식품으로서의 약리적효과도 높아 급속히 보급되고있다.

학생들은 떡과 국수, 김치를 비롯한 민족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으며 식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민속명절에 우리의 고유한 민족음식들을 만들어 먹는것을 즐거운 생활로 되게 하여야 한다.

자식들이 민족음식을 자주 만들어 집안의 어른들에게 대접하는것은 중요한 가정례의범절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과외시간에 민족음식을 자주 만들어 식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하고 가정안에 민족적풍습을 지키는 기풍을 세우는데 한몫 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것이 바로 조국애이며 주체이다.》

《자기 처자, 자기 혈육에 대한 사랑이자 곧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복습문제.

1. 조상전래의 풍습이란 무엇인가.
2. 학생들은 가정에서 민속명절을 어떻게 즐기는가.

과외읽기

민족음식 김치의 유래

우리 조상들이 남새를 재배하고 김치를 담그어먹기 시작한것은 고구려 이전시기로 알려져있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력사자료들에는 이미 고구려 이전시기에도 김치담그는 방법과 같이 소금으로 절여서 먹는 젓갈음식이 있었고 고구려시기에는 무우를 절이고 김장을 담그어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김치는 남새를 소금에 절인것이라는 뜻에서 침채 또는 침장이라고 불렀다. 옛날 어느 한 시기 김씨들이 많이 집권하면서 당시의 왕이 자기의 성인 김자를 따서 김치로 고쳐부르도록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김치만드는 방법이 발전하고 그 종류가 다양해진것은 17세기 중엽인 리조시기부터인것으로 전해지고있다. 17세기자료에는 34종의 김치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여있다. 18세기에 김치종류가 60여가지로 늘어났다. 그중에서 몇가지를 보면 총각김치, 참나물김치, 동치미, 통김치, 백김치, 보쌈김치, 석박김치, 갓김치, 깍두기, 고추김치, 고구마줄기김치, 무우청김치, 박김치, 부추김치, 파김치, 오이김치, 무우장아찌김치, 무우오가리김치, 오이소박이, 풋배추김치, 쑥갓김치, 미나리김치, 가지김치 등이다.

이 시기부터 김치는 우리 민족이 가장 즐겨먹는 음식의 하나로, 3대저장

발효식품인 된장, 간장, 고추장과 함께 없어서는 안될 식품으로 되였다.

예로부터 녀자들이 훌륭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12가지 김치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우리 민족고유음식인 김치는 시원하고 쩡하면서도 독특한 향기와 상쾌하면서도 감칠맛을 조화롭게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날에 와서 일본, 중국,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들에 퍼졌다.

1996년 7월 미국 애틀란타에서 진행된 제26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때 미국정부는 김치를 각국의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공급할 중요음식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특히 지난시기 중국에서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퍼졌던 급성전염병인 싸스에 조선사람들이 감염되지 않은 주되는 요인이 김치를 즐겨먹는데 있다는것이 밝혀진것으로 하여 김치는 많은 외국사람들도 즐겨먹는 세계적인 음식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제3절. 인민의 충복

사람중에는 인민도 있고 인민이 아닌 사람도 있다.

인민은 자기의 로력으로 온갖 재부를 만들어내며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 등이 근로인민대중을 이룬다.

인민이 아닌자들은 반동적지배계급, 착취계급이다. 반동적지배계급, 착취계급은 근로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인민의 원쑤이다.

사람들은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

인민의 충복이란 인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복무하는 사람이다. 다시말하여 인민을 끝없이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이 인민의 충복이다.

어느해 여름날 저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창광산에 오르시여 잠시 산책을 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청사우에는 인민의 모습을 담아 마치와 낫과 붓이 새겨져있는 붉은기가 휘날리고있었다. 지붕우에서 나붓기는 당기를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우리 당기를 바라볼수록 마음이 숭엄해진다고 말씀드리였다.

깊은 추억에 잠겨계시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나는 원래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하느님》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당을 창건하면서 그 기폭에 인민대중의 모습을 새겨넣었다고 하시였다. 그리시면서 나는 인민의 성실한 아들이 되기 위하여 한평생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인민대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아름답다고 하시며 나는 근로하는 인민의 심부름군이라고,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심부름군! 바로 이것이 인민을《하느님》처럼 받드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세이시다. 이처럼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은 인민의 가장 위대한 충복이시다.

인민의 충복이 되는것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가장 충실하게 사는 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기 인민과 인류를 위하여 충실하게 사는것이 곧 자기자신을 위하여 가장 충실하게 사는 길입니다.》

인민의 충복이 되는것이 자기자신을 위해 가장 충실하게 사는 길로 되는것은 우선 매개 개인이 인민의 한 성원을 이루기때문이다.

매개 개별적인간은 인민의 한 성원을 이룬다. 원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인민이라는 커다란 집단안에 속해있으면서 생활해나간다.

그러므로 인민에게 충실하게 사는것은 그안에 속해있는 자기자신을 위하여 충실하게 사는것으로 된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하게 일하여 이루어진 모든 재부는 인민에게 돌려진다. 그러면 그 덕이 자기자신에게도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인민의 충복이 되는것이 자기자신을 위해 가장 충실하게 사는 길로 되는것은 또한 누구나 다 자기자신이 잘되기를 바라기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자신이 잘되고 모든 일이 성공되기를 바란다. 자기자신을 욕되게 하고 미움받는 인간으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여나 성장하면서 앞으로 조국과 인민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인간으로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자기자신이 잘되게 하는 길은 개인의 리익만 알고 리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지 않다. 개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것은 다른 사람들과 집단, 조국과 인민을 등진 생활이기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런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며 사람축에 넣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리기주의적으로 생활하는것은 자기자신을 버림받게 하는 길이고 자기를 망치는 길이다. 결국 조국과 인민은 안중에 없이 저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자기자신에게 가장 불충실한 생활로 된다.

자기자신을 위하여 충실하게 사는 길은 바로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데 있다. 왜냐하면 인민과 운명을 같이하고 인민에게 리익을 주는 사람만이 값높고 사랑받는 인간으로 되기때문이다.

결국 인민의 충복이 되는것은 자신을 위하여 가장 충실하게 사는 길로 된다.

학생들은 모두다 인민의 충복으로 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인민의 충복이 되려면 **《이민위천》**사상을 가지고 인민을 무한히 존중하여야 한다.

《이민위천》이란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뜻이다.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것은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재능있고 무한한 힘을 가진 집단으로 본다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을 하늘같이 귀중히 여기고 떠받들고있다. 국호에서부터 《인민》이라는 말이 들어간 우리 나라에서 《인민정권》, 《인민군대》, 《인민병원》, 《인민문화궁전》, 《인민대학습당》 등의 명칭들은 바로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높이 내세우는 **《이민위천》**사상이 구현된것이다.

《이민위천》사상을 가졌는가, 못가졌는가 하는것은 인민을 존중하는가, 존중하지 않는가 하는것을 보고 인차 알수 있다.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는 사람은 인민대중을 무한히 존중한다.

인민의 충복이 되려면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한다.

인민을 열렬히 사랑한다는것은 인민에 대한 사랑이 몸에 슴배야 한다는것이다.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것이 몸에 슴배이게 하자면 학생시절부

터 인민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학생때부터 로인들과 어린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성의껏 도와주는데서 나타난다. 뻐스나 지하전동차안에서 늙은이와 영예군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어린이들을 애무해주며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것은 비록 큰일은 아니지만 인민을 위해주는 구체적인 행동들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목숨바쳐 지켜내는데서 나타난다. 학생이라고 해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된것이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모든 비품이 인민의 재산이다.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보통의 평범한 날뿐아니라 뜻밖의 재난을 당하게 될 때에도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목숨바쳐 지켜내야 한다. 누구나 다 일상생활에서 인민사랑을 깊이 간직한 정도에 따라 행동한다.

위급한 순간에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원해야 할 위치에서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자로 자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인민에게 피해를 주는 원쑤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데서 나타난다.

우리 내부에 숨어있는 원쑤들은 해방전에 인민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며 주인행세를 하던 옛처지를 한시도 잊지 않고있다. 놈들은 그때가 다시 오기를 벼르고 벼르면서 우리 제도에 대하여 악을 먹고 온갖 흉악한짓을 다하고있다. 놈들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라도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옛날의 자기 땅을 꼭 찾으라고 손자놈들에게 땅문서를 넘겨주고있다. 놈들은 밖에서 책동하는 원쑤들과 손을 잡고 사람을 죽이고 건물에 불을 놓으며 나쁜 소문을 퍼뜨려 민심을 소란하게 하는 등 별의별짓을 다 꾸미고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 계급적원쑤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학생들은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의 리익을 지키는 참다운 충복으로 자라나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대중을 위하여 필요하고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충실한 심부름군이 바로 참된 일군이다.》

《일군들에게 있어서 보람있는 생활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면서 인민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사는 생활이다.》

복습문제

1. 인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사는것이 왜 자기자신을 위해 가장 충실하게 사는것으로 되는가.
2. 인민의 충복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외읽기

위대한 장군님의 《10대인민관》

① 가장 열렬히 숭배하는 《하느님》은 인민

② 가장 높이 존경하는 선생은 인민

③ 제일 힘있는 존재는 인민

④ 제일 재능있는 창조자는 인민

⑤ 제일 강한 무기는 인민의 일심단결

⑥ 가장 큰 념원은 자주성이 실현된 인민의 락원건설

⑦ 가장 큰 기쁨은 인민의 행복

⑧ 가장 큰 괴로움은 인민의 불행

⑨ 가장 큰 분노는 인민의 존엄과 리익에 대한 침해

⑩ 제일 사랑하는 좌우명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제3장. 수령에 대한 충실성

제1절. 수령과 전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에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사랑과 보답의 의리가 있을뿐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령과 전사사이에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 보답의 관계가 있다.

수령과 전사사이는 고귀한 삶, 사회정치적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 최고뇌수이다.

수령은 전사에게 고귀한 삶을 안겨준다.

수령은 전사들이 옳바른 사상을 가지고 참되게 살도록 손잡아 이끌어준다.

수령은 옳은 혁명사상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전사들을 무장시킨다.

매개 전사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니고 그것이 밝혀주는 길로 투쟁해나간다. 수령은 전사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세세히 가르쳐주고 손잡아이끌어준다. 매개 전사들이 자기 맡은 초소에서 일을 잘하도록 지혜를 주고 이끌어주며 애로와 난관을 극복해나가도록 힘을 안겨주는 수령의 손길은 어느 한순간도 멈춤이 없다. 수령의 사랑의 손길이 있음으로 하여 전사는 참된 삶을 빛내이며 혁명가로 자라난다. 그러므로 혁명가의 참된 삶과 보람은 수령의 사랑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다.

수령은 전사에게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준다.

사람에게는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이 있다.

육체적생명은 부모가 주지만 사회정치적생명은 수령이 안겨준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조직의 한 성원이 되여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된 인간으로 되는 생명이다. 전사들의 사회정치적생명은 수령에게서 받아안는다. 수령은 전사를 조직의 한 성원으로 키워주고 혁명집단에 묶어세워준다. 또한 혁명적인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정치적생명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세심히 보살

펴준다. 이렇듯 수령은 혁명전사들에게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전사들은 수령에게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는다.

수령과 전사는 참된 삶,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것만큼 그사이에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도덕의리가 있게 된다.

수령은 전사들을 굳게 믿어주고 끝없이 아끼고 사랑한다. 수령은 부모들의 혈연적인 사랑에 비할바없이 뜨겁고도 끝이 없는 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안겨준다. 전사들은 수령의 커다란 믿음과 바다같은 사랑에 감격을 금치 못하며 모든것을 다바쳐 보답한다. 전사들의 보답은 강요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부터 흘러나온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에는 수령과 전사사이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도덕을 보여주는 가장 뜨거운 화폭들이 나온다. 그가운데서 깊은 감동을 주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김혁선생님의 수첩에 친필을 남기시는 장면이다.

《잊지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
이역만리 오두막에서
1930.6.20
너는 김혁
나는 성주》

이 친필에는 김혁선생님을 생사를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굳게 믿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있다.

김혁선생님은 길림감옥에서 석방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자기와 은주사이의 사랑을 꽃피워주시고 또 한명의 혁명동지를 얻기 위하여 200리길도 훨씬 넘는 곳을 찾아오시였다는것을 알고 뜨거운 눈물을 머금는다.

《내 꺼꾸러져 혁명을 더 못하게 된다 해도 한별! 그대의 곁을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리라.》

김혁선생님은 그날에 다진 맹세대로 경애하는 수령님을 받드는 길에서 끝까지 충실하였다.

김혁선생님은 적들에게 뜻밖에 체포되게 되였을 때 한발자국 물러서면 얼마든지 살수 있었으나 한별동지의 뜨거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 전사의 도리가 아니라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기때문에 태양을 빛내이는 별이 되여 서슴없이 청춘을 바치였다.

이렇듯 수령과 전사사이에는 믿음과 사랑, 보답의 도덕적의리의 관계가 있게 된다.

모든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사들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여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잘 알고 언제나 장군님께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보답하는 참된 전사로 준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사랑은 내리고 충성은 오르는 법이라고 하는데 진실한 사랑과 충성이야말로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에 존재하는 고유한 륜리라고 말할수 있다.》

복습문제

수령과 전사사이에는 어떤 도덕의리적관계가 이루어지는가.

과외읽기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

력사의 갈피를 더듬어보면 아래사람이 웃사람을 먼저 믿고 신하가 임금을 먼저 믿는것이 믿음의 전례였다.

실례로 나폴레옹 1세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나도 그대를 믿는다.》고 했고 중국의 문무황제는 《경이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내 또한 경을 저버리지 않겠노라.》고 하였다.

이 말들에는 네가 나를 먼저 믿으면 나도 너를 믿겠다는 속대사가 담겨져있다. 상대방이 자기를 믿는 조건에서 믿겠다는 이런 믿음은 진실한것이 못된다.

혁명동지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은 먼저 믿음을 주시는 참믿음이며 동지를 자신처럼 믿고 마음전부를 통채로 맡기시는 참믿음이다.

주체78(1989)년 2월 7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업과 생활의 귀중한 벗이

될수 있게 몸소 고안하여 만들도록 하신 《사업수첩》을 일군들에게 나누어주시였다. 한 일군의 간절한 청원에 따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사업수첩》첫장에 믿음의 친필을 써주시였다.

《너는 허담
충실한 당의 전사
나는 정일
1989. 2. 7
김정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격에 겨워하는 일군들에게 사람을 믿는다는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 준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동무들을 믿는다는것은 나의 마음 전부를 동무들에게 맡긴다는것을 말한다고 하시였다.

제2절. 충실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우리 청년들이 지녀야 할 가장 숭고한 정치사상적풍모입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는 품성이다. 다시말하여 자기의 피와 땀, 힘과 마음 나아가서는 목숨까지 바쳐 수령을 우러러모시고 받들며 보위한다는것이다. 이러한 충실성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바로 수령에 대한 매혹과 숭배에서 흘러나온다. 매혹과 숭배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바탕을 이룬다.

매혹은 그 무엇에 마음이 쏠리여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감정상태이다.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경치에 반하기도 하고 진한 꽃향기에 취하기도 한다. 때로는 말과 행동을 고상하게 하고 정신세계가 아름다운 사람에게 저도모르게 끌리우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매혹이다.

인간에 대한 매혹가운데서 가장 크고 강한 매혹은 수령에 대한 매혹이다.

수령은 가장 위대한 인간이다.

사람들이 수령의 위대성에 접하게 되면 수령에게 완전히 매혹되게 된다. 사람들이 수령의 사상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풍모의 위대성에 접하게 되면 수령에게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혹되게 된다.

수령에 대한 매혹은 숭배에로 발전한다.

숭배는 아무 사람에 대해서나 생기는것이 아니다. 숭배는 인간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간에게 완전히 반하였을 때 생겨난다.

수령을 숭배한다는것은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신다는것이다.

수령을 숭배하면 매혹된 마음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수령만을 높이 우러러모시게 된다.

수령을 숭배하면 오직 수령만을 가식이 없이 우러르고 그리워하며 항상 수령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만을 굳게 믿고 영원히 따르게 된다.

수령에 대한 매혹과 숭배는 가식과 변심이 없다. 그러므로 매혹과 숭배에서 우러나오는 충실성은 진짜 충실성으로 된다. 가짜충실성은 리속을 가지고 꾸미고 걸발림으로 표현하기때문에 인차 변한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은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매혹과 숭배에 바탕을 두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인류의 태양》,《21세기의 태양》으로 끝없이 숭배하고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몸과 마음에 깊이 슴배이면 절대적인 충실성으로 된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자면 우선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을 지녀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하며 자그마한 티도 있어서는 안된다. 충실성에 조금이라도 티가 있고 흠이 있으면 그것은 참다운 충실성이 될수 없다.

진짜충신은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다 한모습이고 순탄한 길을 걸을 때도 시련의 길을 걸을 때도 언제나 한모습이다. 리로울 때는 이 길을 가다가 불리할 때는 저 길을 가는것은 배신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가장 뜨겁고 깨끗하며 가장 깊고 넓으며 가장 공고하고 영원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자면 또한 대를 이어 계속되는 영원한 충실성을 지녀야 한다.

충실성은 대를 이어 계속되여야 한다.

선대수령에게 충실한 사람은 수령의 위업을 참답게 계승완성해나가는 령도자에게도 그대로 높은 충실성을 발휘한다. 선대수령을 진심으로 받든 충실성은 수령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도 그대로 발휘되기때문에 대를 이어 계승되게 된다. 대를 이어 계승되지 않는 충실성은 선대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진심이 아니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은 선대수령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자의 위대성에 대한 매혹과 숭배에서 우러나온 참다운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데서 항일혁명투사들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앞장에 서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그들이 장군님께 인간적으로 매혹되였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은 **김정일**동지처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충신은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 **김정일**동지처럼 무비의 담력과 뛰여난 지략을 소유한 령장은 없다, **김정일**동지처럼 인정미가 풍부한 사람은 없다, **김정일**동지처럼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혁명전통을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은 없고 **김정일**동지와 같은 위대한 사상의 대가, 령도의 대가가 없다고 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한 항일혁명투사는 한생을 위대한 장군님께 충실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러기에 그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소부대공작을 나갔을 때에는 무거운 무전기를 걸머지고 총검의 숲을 이룬 사지판을 몇백리 헤쳐오면서 수십알의 닭알까지 구해가지고 김정숙어머님과 어리신 장군님께 찾아와 드린 일도 있었다고 회고하시였다.

이렇듯 항일혁명투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 충실한것처럼 위대한 장군님께 충실하였다.

대를 이어 높이 발양되는 이러한 충실성을 지녀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할수 있다.

그러므로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이야말로 절대적인 충실성으로 되는것이다.

학생들의 충실성은 학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데 있다.

학생으로서의 도리는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는데 있다.

학습은 학생의 본분이다. 학습을 잘해야 앞으로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 어느 초소에 가서도 일을 잘할수 있다. 중학교에서 배워주는 지식은 참된 인간으로 될수 있도록 안받침해주는 귀중한 재부이

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더많은 지식을 배우고 제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조직생활을 통하여 누구나 사상적으로 단련되고 도덕적으로 수양되게 된다. 청년동맹조직생활에 성실하게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사상적으로 건전하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자신을 참된 인간으로 준비하자면 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조직의 위임분공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데 습관되여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더 잘, 더 깊이 인식하며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속에 생활이 있고 투쟁이 있으며 생활과 투쟁속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 싹트고 자라난다.》

《우리에게는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다 한 모습이고 순탄한 길을 걸을 때도 시련에 찬 길을 걸을 때도 언제나 한모습인 그런 충신이 필요하다.》

복습문제

1. 매혹과 숭배란 무엇인가.
2.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어떤것인가.

제3절. 수령결사옹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결사옹위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현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기본담보입니다.》

수령결사옹위는 말그대로 수령을 목숨바쳐 옹호보위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자기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여 막아나서고 육탄이 되여 맞받아나아가 수령을 옹호보위하는것을 말한다.

수령결사옹위는 수령께 가장 충실한 행동이다.

수령께 충실한 행동은 여러가지로 표현된다.

수령께 충실한 여러가지 표현가운데서 수령을 위하여 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는 행동이 충실성의 최고표현이다.

수령결사옹위는 수령을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한몸이 육탄이 되고 자폭도 서슴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있다.

수령결사옹위는 우선 수령의 신변을 결사보위하는것이다.

수령의 신변을 결사보위하는것은 수령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친다는것을 의미한다.

수령결사옹위에서 수령의 신변을 결사보위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령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는것은 결사옹위에서 가장 첫 자리에 놓인다.

수령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웃으면서 자기 몸을 내대는 사람이 결사옹위의 투사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은 수령결사옹위의 귀감이시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셔야 조선민족이 구원될수 있고 조국해방이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절감하시고 언제나 육탄이 되시여 수령님의 건강과 신변안전을 지키시였다.

수령결사옹위는 또한 수령의 권위를 결사옹위하는것이다.

수령은 높은 권위를 지닌 위인이다. 수령의 높은 권위는 인민대중과 민족이 수령을 중심으로 뭉치게 하고 우러르며 따르게 한다.

수령의 권위를 결사옹위하는것은 수령의 절대적인 권위에 자그마한 손상이라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한목숨을 스스럼없이 바치는것이다.

수령의 권위를 결사옹위하는 사람은 수령의 높은 권위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마음을 쓰고 수령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것을 보게 되면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막아내기 위해 목숨을 내댄다.

목숨을 내대고 수령의 높은 권위를 지키는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다. 누구의 강요나 통제를 받아서 억지로 나서는 사람은 수령의 높은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바치기를 두려워한다. 또 목숨을 내댈 각오가 없는 사람의 눈에는 수령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행동, 수령의 권위에 그늘을 짓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

수령의 높은 권위가 저해되는것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나 감

정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막기 위하여 나서지도 않는다. 오직 수령의 권위를 지키는것을 자기의 마땅한 의무로, 자기자신의 도덕적량심으로 여기는 사람만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한몸으로 막아나서고 목숨을 바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수령결사옹위투사의 참모습이다.

수령결사옹위는 또한 수령의 업적을 결사고수하는것이다.

수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 거대한 업적을 쌓는다. 수령의 업적에는 수령의 한평생의 로고가 깃들어있다. 수령의 업적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안받침해주는 거대한 재부로, 만년토대로 된다. 수령이 이룩한 업적을 고수하는가 고수하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수령을 결사적으로 옹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으로 된다.

수령을 결사옹위할 각오로 불타는 사람은 수령의 업적을 고수하는데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수령의 업적을 자기 목숨을 바치여서라도 100% 고수해내며 그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조선인민군 어느 한 부대의 17명의 영웅들은 바로 수령의 혁명전통업적을 결사적으로 고수한 충신들이다.

1998년 3월 혁명사적지산발에서 뜻하지 않게 산불이 일어났을 때 17명의 영웅들은 혁명적구호문헌을 결사적으로 지켜내고 최후를 마치였다.

수령결사옹위는 또한 수령의 사상과 방침을 결사관철하는것이다.

수령을 결사옹위하는것은 수령의 사상과 방침을 결사적으로 관철하는 사업과 떼여놓고 말할수 없다.

수령의 사상과 방침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이 종합된것이다. 수령은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그들이 바라는 것을 정책에 담아서 방침을 내놓는다. 수령이 내놓은 사상과 방침에는 수령의 구상과 의도가 담겨져있고 혁명이 승리할수 있는 길이 있다.

수령을 결사옹위할 각오로 충만되여있는 사람은 수령의 사상과 방침관철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결사옹위투사는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가며 수령의 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한다.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를 고르거나 조건도 타발하지 않는다. 아무리 어렵고 불리해도 자기의 열성과 능력, 재능을 마음껏 바칠수만 있다면 그 이상 바라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수령의 사상과

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한 초소를 30년, 40년 지켜서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긴다. 그 길에서 자기의 한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수령의 사상과 방침을 관철한다.

수령의 방침을 결사관철한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하면서 100리물길굴을 뚫는 전투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결사적으로 싸웠다. 그리하여 100리물길굴관통날자를 계획대로 보장하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의 보고를 올릴수 있었다. 청년영웅도로건설자들도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며 세계건설력사에도 세계대백과사전에도 없는《마대전》을 벌려 청년영웅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방침을 훌륭히 관철하였다.

이처럼 수령결사옹위는 자기의 한 목숨을 서슴없이 내대여 수령의 신변을 보위하고 권위를 옹호하며 업적을 고수하고 사상과 방침을 옹호하고 관철하는것이다.

수령결사옹위는 그 어떤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직접 자기의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

학생청년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것을 마땅히 지켜야 할 숭고한 도덕의리로 여기고 수령결사옹위투사로 자라나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되여야 한다.》

《시국이 좋을 때에는 돋보이지 않아도 시국이 어려울 때 돋보이는 사람이 충신이다.》

복습문제

1. 수령결사옹위란 무엇인가.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결사옹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외읽기

수령결사옹위로 영생하는 길영조영웅의 자작시

…

땅에서 받은 삶을
하늘에서 빛내여갈 신념
날이 갈수록 더욱 굳어지나니

억센 기수 드높이 추켜들리
위훈이 없이는 결코 보금자리로 돌아갈수 없는
나는 하늘의 결사대,
태양과 제일 가까이에 있어 빛나는 별

아, 나는 조선의 비행사이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비행사이기에
이 한몸 천쪼각, 만쪼각이 난대도
영광의 길에 뿌려지는
은빛꽃보라로 흩날리리

제4절. 실력이 높아야 충실할수 있다.

실력은 실제적으로 발휘할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말하면 그 어떤 일을 맡겨도 자체로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는 힘과 수완, 방법 등을 통털어 실력이라고 한다.

실력이 높다는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뼈와 살로 만들고 과학기술지식수준과 그 활용능력이 높다는것을 말한다. 비록 아는것이 많다고 하여도 그것을 실천에 써먹을줄 모르는 사람은 실력가라고 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실력이 없으면 진실로 당에 충실할수 없습니다.》

실력이 높은 사람만이 진실로 당에 충실할수 있다.

실력의 높이는 충실성의 높이이다.

실력이 높아야 그 실력으로 나라에 이바지하고 당에 충실할수 있다.

실력이 높아야 무엇보다도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제때에 정

확히 구현할수 있다.

사람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실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제기된 과업을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방도를 폭넓게 탐구한다. 과업을 앞에 놓고 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대담하게 내밀며 실패와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성공에로 전진하는 능력은 그대로 실력의 산물이다. 사색의 폭이 넓고 깊이가 무한하며 창조력이 풍부한것도 높은 실력의 결과이다. 이처럼 실력이 높은 사람은 맡겨진 일을 못해내는 때가 없다.

결국 실력의 높이이자 실천의 높이라고 할수 있다.

실력이 낮은 사람은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에 자기 수준에서 방도를 찾고 과업을 수행할뿐 당이 요구하고 바라는 높은 수준에서 수행하지 못한다.

누구나 실력이 높아야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충신으로 된다.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김책선생님은 실력으로 당과 수령을 끝없이 충실하게 받들어온 혁명전사의 전형이다.

김책선생님은 대학공부도 못하고 경제도 기술도 배운것이 없었다. 하지만 조국이 해방된 후 어려운 형편에서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정책으로 무장하고 경제도 배우고 기술도 탐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다음 건당, 건국, 건군사업을 령도하실 때 김책선생님에게 여러가지 중책을 맡기시였다. 공화국이 창건된 다음에는 그를 부수상 겸 산업상으로 임명하시여 나라의 산업건설을 맡아보게 하시였다. 김책선생님은 그 어떤 초소에서든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였다. 그는 새 조국 건설시기 빈터우에서 수풍발전소대보수공사를 성과적으로 하여 전력문제를 풀었고 철도수송과 금속공업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하였다. 김책선생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산업을 맡아보라고 하시면 산업을 맡아 추켜세우고 병기생산을 맡아하라고 하시면 병기생산을 맡아 수령님의 구상대로 병기를 생산해냈다.

김책선생님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정책으로 무장하고 높은 실력을 소유하였기에 수령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무슨 일이나 제때에 훌륭히 수행하였다.

실력이 높아야 다음으로 나라의 명예를 당당히 떨칠수 있다.

체육선수들이 국제경기에 나가서 1등을 하여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것도 체육기술을 높인데 있다.

2004년 6월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제11차 국제학생로어올림픽경연에 참가한 평양외국어대학 외국어학원 학생들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것도 그 실례이다.

세계 36개 나라에서 온 224명의 학생들가운데서 우리 나라의 6명의 학생들모두가 최우수상장과 1급상장들을 수여받는 유일한 나라로 된것은 그들이 마음껏 배워 실력을 다져온데 있다.

이처럼 실력이 높을 때에만 그 어디에 가서나 자기 맡은 일을 훌륭히 완성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한몫 하자면 학생시절에 실력을 높이 쌓아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끊임없는 선군혁명령도로 이르는 곳마다에서 강성대국건설의 봉화를 지펴주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큰 몫을 맡아제낄것을 굳게 믿고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자면 학생들이 학생시절에 실력을 높이 쌓아야 한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회에 나가서 충실하겠다고 아무리 속다짐하여도 배우는 시절에 실력을 높이지 않으면 진실로 당에 충실할수 없다. 그때에 가서 아무리 후회하여도 잃어버린 시간은 되찾을수 없다.

학생들은 우선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여 높은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은 높고 풍부한 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더 빨리, 더 훌륭하게 건설할수 있다. 수학, 물리학, 생물학, 화학, 정보기술부문 등 모든 분야에서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학생들은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바로 중학교시절에 쌓아진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모든 과목수업시간에 배우는 지식을 완전히 소화하며 더 깊이,더 풍

부하게 습득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은 또한 학창시절에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소유해야 한다.

높은 실력을 갖추는데서 기본은 지적능력을 높이는것이다. 그러나 지적능력이 기본으로 된다는것은 결코 고상한 도덕품성이 바로서지 않아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배움의 시절에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고상한 도덕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또한 학창시절에 튼튼한 체력을 소유해야 한다.

몸이 약하면 배운 지식을 실천에 제대로 써먹을수 없다.

지식이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된 체력과 결합되여야 빛이 날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중학교시기에 자기의 몸을 억세게 키우기 위하여 국방체육, 롱구, 배구, 축구와 같은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늘 자기의 몸을 단련하기 위하여 한시도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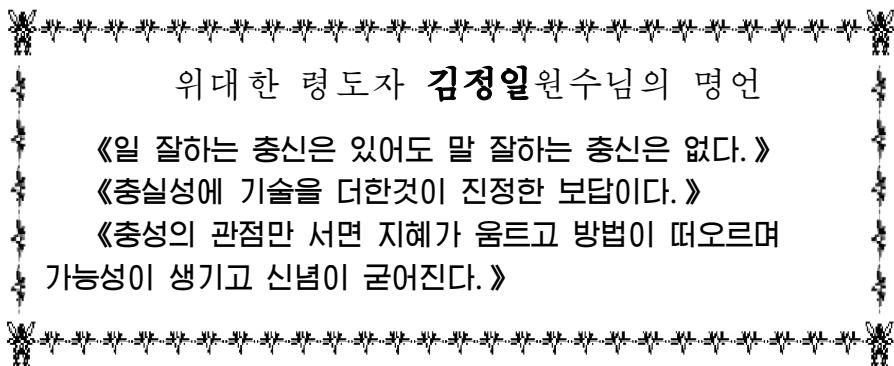
높은 실력의 바탕은 벌써 중학시절에 마련되고 사회에 나가거나 상급학교에 가서 배우는 지식이 그우에 쌓아진다. 중학교에서 잘 배우지 않고 상급학교에 가서 잘 배우면 사회가 요구하는 실력을 갖출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잘못된것이다.

텔레비죤극《교정의 륜리》에서 실력이 없는것으로 인정되여 비난을 받는 표기환학생을 보게 된다. 그는 중학교에서 공부를 꾸준히 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하여서도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 교원들의 방조밑에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대외경제부문에서 일하던 그는 중요한 설계문건료해와 검열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번 한다.

표기환은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자책과 수치감에 모대기다가 대학졸업증을 스스로 바치고 교정을 나선다.

표기환의 후회는 이미 때늦은것이였다.

학생들은 먼 후날 자신의 모습을 표기환과 비교해보면서 중학시절에 높은 실력의 기초를 착실하게 쌓아나가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높이는 실력의 높이이며 실천의 높이라는것을 잘 알고 실력가가 되기 위하여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일 잘하는 충신은 있어도 말 잘하는 충신은 없다.》

《충실성에 기술을 더한것이 진정한 보답이다.》

《충성의 관점만 서면 지혜가 움트고 방법이 떠오르며 가능성이 생기고 신념이 굳어진다.》

복습문제

1. 실력이란 무엇인가.
2. 높은 실력을 갖추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4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1절. 형법의 본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법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만 온갖 적대적요소의 준동을 철저히 막고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는데서 형법이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어떤 위법적인 행위가 범죄로 되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떠한 처벌을 어느 정도 주겠는가를 규정한것이 형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형법을 범죄와 형벌에 대하여 규정한 부문법이라고 한다.

형법은 국가사회제도와 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는것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우리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우리 나라 형법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된다.

우리 나라 형법은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보위하는데 이바지하는 법적투쟁수단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와 낡은 인습의 발현을 막고 반동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 불건전한 사상문화요소들의 침습을 반대하는 힘있는 투쟁의 무기이다.

우리 나라 형법은 범죄자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소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생명, 건강, 인격과 재산을 믿음직하게 보호하고 국가사회 및 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어떤 위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해당한 법적제재를 가할데 대한 요구는 형법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행정처벌법에도 있다. 그러나 형법에 있는 법적제재와 행정처벌법에 있는 법적제재는 서로 구별된다.

형법적제재는 엄중한 위법행위를 저지른자에게 주는 처벌이라면 행정처벌법적제재는 형법적제재를 줄수 없는 정도의 경한 위법행위를 저지른자에게 주는 처벌이다. 그러므로 형법적제재에서는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이 기본형벌로 되며 행정처벌법적제재에서는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과 로동교양, 해임, 강직, 철직이 기본처벌로 된다.

형법적제재는 재판을 통하여 주는 처벌이고 행정처벌법적제재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나 권한있는 국가기관의 결정을 통하여 주는 처벌이다.

형법적제재와 행정처벌법적제재는 일련의 차이를 가지지만 다같이 위법행위를 저지른자에게 주는 처벌이다.

제2절. 범죄와 형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범죄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범죄는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의 공동의 리익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이다. 다시말하여 국가와 사회와 인민에게 손실을 주었거나 손실을 줄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리익과 인민의 생명재산에 손해를 주었거나 줄수 있는 행위가 다 범죄로는 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 다시말하여 형벌을 줄수 있는 위험한 행위만이 범죄로 된다.

그러므로 범죄자로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형사적처벌을 주기 위해서는 범죄로 되는 일정한 성립조건이 있어야 한다.

형법에서는 그러한 성립조건들을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정하고 있다.

첫째로는 범죄자가 침해하는 사회관계를 특징짓는 표징이며

둘째로는 범죄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를 특징짓는 표징이며

셋째로는 범죄자의 정신적 및 심리적잘못을 특징짓는 표징이며

넷째로는 위법행위를 한자가 형벌을 받을수 있는 형사책임능력자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표징이다.

이러한 표징들을 간단히 말하여 범죄가 침해하는 사회관계, 범죄의 객관적표징, 범죄의 주관적표징, 범죄자의 표징이라고 한다.

이 네가지 표징이 범죄성립조건이므로 이 표징들가운데서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범죄로 될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범죄는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 확립된 사회주의적관계를 침해하였을 때에 인정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주의적관계들이 확립되여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사회관계에 대한 침해는 곧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침해이며 전체 근로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회주의사회관계를 침해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것을 범죄로 보는 첫째 징표로 삼고있다. 실례로 우리 나라 형법에서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성에 맞게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지 말데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그런데 망나니짓을 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였다면 이것은 큰 범죄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범죄는 다음으로 위험한 행위가 외부적으로 나타나야 인정된다. 즉 범죄의 객관적표징이 있어야 한다.

범죄행위는 우리 국가와 사회, 인민을 침해하려는 범죄자의 범죄적생각이 실천에 옮겨져 우리 국가와 사회의 안전과 재산, 인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부정적영향을 주었거나 줄수 있는 행위

이다. 범죄자의 범죄적생각이 외부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국가와 사회, 인민에게 부정적영향을 줄수 없다. 따라서 범죄자의 범죄적생각이 외부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실천에 옮겨지지 않은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않는다. 실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죽이겠다고 말을 한것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 죽이겠다고 말한 사람의 생각이 실천에 옮겨져 칼이나 몽둥이를 준비하는 경우에만 죽이려는 생각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였기때문에 범죄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범죄는 다음으로 국가와 사회, 인민에게 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마음이 있었을 때와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조금만 각성을 높이고 주의를 돌렸다면 국가와 사회, 인민에게 해를 주지 않을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인정된다. 즉 범죄의 주관적표징이 있어야 한다.

의도적인 마음이나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것을 고의적인 범죄라고 하며 그러한 마음이 없이 무경각하게 범죄를 저지르는것을 과실적인 범죄라고 한다.

실례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내는 경우는 고의적인 범죄로 되지만 경비를 서면서 술을 마시고 자다가 순찰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일어나 많은 재산이 타버렸다면 과실적인 범죄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범죄는 다음으로 범죄자의 표징이 갖추어져야 인정된다.

범죄자로서 형벌을 받을수 있는 나이는 14살부터이다. 14살이상부터 사회적으로 위험한 범죄행위를 감행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신병자와 14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자로 되지 않으며 형벌을 받지 않는다.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의 여덟가지가 있다.

형벌은 범죄를 저지른자에게 재판을 통하여 국가가 주는 처벌이다.

범죄자에게는 그가 저지른 범죄의 엄중성에 따라 해당한 형벌이 가해진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사형은 우선 가장 위험하고 엄중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자들에게 주는 처벌이다.

사형은 또한 일반범죄인 고의적살인죄에서 악착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자에게 주는 처벌이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된 교화소에 넣어 육체적인 자유를 박탈하고 엄격한 규률과 감독밑에 육체적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처벌이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자들과 일반범죄자들에게 주는 처벌이다.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여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이다.

로동단련형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된다.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부가형벌이다.

부가형벌이란 독립적으로 주지 못하고 사형과 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기본형벌에 덧붙여주는 처벌을 말한다.

선거권박탈형기간은 로동교화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재산몰수형은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주는 처벌이다. 이 처벌도 부가형벌이다.

재산몰수형은 국가전복음모죄와 테로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와 같은 반국가, 반민족범죄들에 적용한다.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에 덧붙여주는 부가형벌로서 범죄자가 가지고있는 일정한 자격을 완전히 빼앗거나 일시적으로 빼앗는 처벌이다.

여기서 모든 자격이 아니라 오작설계, 오작시공죄, 수의방역 및 사양관리규정위반죄, 교통사고죄, 저작, 발명, 창의고안묵살죄와 도용죄, 어린이보호관리질서위반죄, 의료사고죄에 해당될 때 범죄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시킨다.

정지기간은 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며 그것을 전복하려는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허용하지 말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고 착취제도를 복귀하려 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반대하는 온갖 적대행위를 말한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는 개인리기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잔재로 하여 국가와 사회를 좀먹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범죄와는 달리 근로인민의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착취제도를 되살리려는 목적밑에 감행되는 반혁명적이며 반인민적인 행위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는 국가전복음모죄, 테로죄, 반국가선전선동죄, 조국반역죄, 간첩죄,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파괴암해죄,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민족반역죄, 조선민족적대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가 있다.

국가전복음모죄는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적대분자들이 사회주의국가를 안으로부터 파괴하고 전복하기 위한 조직적이며 폭력적인 책동의 한 형태로서 반국가범죄가운데서 가장 위험하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우리 나라에 숨어있는 적대분자들과 결탁하여 우리의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특히 최근시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반사회주의적책동의 예봉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고 전복하려는데 집중하고있다.

그러므로 국가전복음모책동을 철저히 분쇄하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테로죄는 적들이 반국가적목적밑에 우리의 혁명력량 특히 간부들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는 가장 악랄한 반국가범죄이다.

간부는 당과 국가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적들은 간부들에 대하여 테로행위를 감행함으로써 국가주권을

약화시키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지장을 주며 나아가서는 우리 인민들의 앙양된 혁명적기세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게 하려고 책동한다.

반국가선전선동죄는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방해하며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변질시킬 목적밑에 감행되는 원쑤들의 발악적인 범죄행위이다.

조국반역죄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적을 도와주는 가장 큰 범죄행위이며 우리 조국의 안전을 침해하는 엄중한 반역행위이다. 공화국공민으로서 조국반역행위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

민족반역죄는 제국주의지배밑에서 그와 결탁하여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범죄를 말한다.

민족반역죄는 조선민족의 존엄을 버리고 적의 주구로 전락되는 가장 극악한 반역범죄이다.

간첩죄는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과 잠재력을 알아내여 적에게 넘겨주는 범죄행위로서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척후병노릇을 하는 가장 더럽고 비렬한 반국가적범죄행위이다.

공화국공민이 간첩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국반역죄로 처벌을 받는다.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는 다른 나라 사람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에게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도록 추기거나 자금을 대줌으로써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외교관계 또는 조약을 단절, 페기하도록 하는 적대행위이다.

파괴암해죄는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반국가적행위이다.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는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단절, 약화시킬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감행하는 행위이다.

실례로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밑에 외국인을 살해하거나 외국인을 랍치하여 구속하는

경우를 들수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감행할 당시에는 관계하지 않고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가 감행된 다음에 범죄자나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행위이다.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죄는 반국가범죄가 준비되고있거나 감행된것을 알면서 범죄 또는 범죄자를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행위이다.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는 반국가범죄의 긴급한 침해를 능히 막을수 있었거나 그 결과를 막을 대책을 능히 세울수 있는데도 그와 투쟁하지 않았거나 아무런 방지대책도 취하지 않은 행위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하며 이와 함께 재산몰수형과 선거권박탈형에 처한다.

.

제4절.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시대, 우리 혁명에서는 군사가 첫째이고 국방공업이 선차이며 국방공업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에게 사활적인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없애보려고 미쳐날뛰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발악적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려면 무기, 전투기술기재를 비롯한 군수품을 많이 생산하며 그를 잘 관리하여 언제든지 쓸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탕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선차적으로 하여야 하며 국방관리질서에 저해를 주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에는 국방위원장의 명령과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을 태만한 죄,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 군사경비근무질서위반죄, 군수품 잃어버린 죄, 군사복무동원기피죄, 군인으로 가장한 죄, 국방비밀루설죄 등이 속한다. 이외에도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 죄, 무기, 탄약비법휴대, 양도죄,

군사임무수행방해죄, 군수품을 팔고 산 죄도 있다.

국방사업과 관련한 국방위원장의 명령과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는 우리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으로서 그 집행을 태공한것으로 하여 발생할수 있는 후과는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는 엄중한것이다.

이로부터 공화국형법은 국방위원장의 명령과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을 태공한 범죄를 설정하고 그와의 엄격한 투쟁을 벌릴것을 예견하고있다.

공화국형법에는 국방위원장의 명령과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을 태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태로 처벌하게 되여있다.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란 무기, 탄약을 비롯한 전투기술기재나 은페호, 좌지 등 군사시설물을 파손시켜 그것이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무기, 탄약을 비롯한 전투기술기재와 군사시설은 국방력강화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수단으로서 여기에는 혁명선렬들의 피와 우리 인민의 땀이 스며있다.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기본수단인 전투기술기재와 군사시설을 누구나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소중히 다루며 언제든지 사용할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투기술기재와 군사시설을 파손시킨 행위는 나라의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엄중한 행위로서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

군사경비근무질서위반죄란 경비를 책임적으로 서지 않아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 행위를 말한다.

이 범죄는 붉은청년근위대, 로농적위대훈련을 비롯하여 민간군사훈련에 동원되여 경비근무를 책임적으로 서지 않은 경우에 성립된다.

군사경비근무성원들이 경비하는 대상물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초상화와 영상작품을 비롯한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사적물들과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데 필요한 군수품들과 군사시설물들이 있다.

경비대상물들을 목숨바쳐 지키는것은 경비성원들의 가장 중요

한 전투임무이다. 경비를 서면서 잠을 자거나 다른 사람들과 잡담하며 지어 근무장소를 리탈하여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군사경비근무질서위반으로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

군수품을 잃어버린 죄란 무기, 탄약을 비롯한 전투기술기재와 피복류를 잃어버린 행위를 말한다.

무기, 탄약을 비롯한 군수품은 적과의 싸움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며 군사임무에 동원된 사람들이 귀중히 다루고 관리하여야 할 대상들이다.

무기, 탄약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반대하는 원쑤들에게 들어갈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여 그 후과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므로 무기, 탄약을 비롯한 군수품을 보호관리하는것은 군사임무수행에 동원된 사람들의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를 어기고 무기, 탄약의 휴대와 보관관리를 되는대로 하여 잃어버린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처벌을 받는다.

군사복무동원기피죄란 군사복무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정한 기간안에 지정된 장소에 가지 않거나 이러저러한 군사복무동원에 빠지는 행위를 말한다.

조국보위는 공화국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공화국공민인 우리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다 선군시대에 군사복무를 하는것을 가장 긍지높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군사복무를 기피한 행위는 공화국공민의 가장 수치스러운 행위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뿐아니라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된다.

군인으로 가장한 죄란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 행세하면서 위험한 행위를 한 죄를 말한다.

군복은 군인을 상징하는 제복이다.

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복을 입고다닐수 없으며 군인으로 행세할수 없다.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 행세하면서 위법행위를 하는것은 인민군대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용서할수 없는 범죄로 된다.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저지른자는 로동단련형,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엄중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학생청년들은 선군시대에 사는 청년답게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며 국방관리질서를 지키는데서 앞장서야 한다.

제5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를 침해한 범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법검찰기관들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탐오랑비하는것과 같은 범죄행위들과의 투쟁을 강화하여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소유에 속하는 모든 재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이며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귀중한 재부이다.

사회주의소유인 국가소유와 사회협동단체소유는 다같이 우리 국가의 경제적기초이다.

국가의 경제적기초가 튼튼해야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튼튼히 고수하고 견지해나갈수 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 있다.

또한 인민대중에게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으며 우리 후대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안겨줄수 있다.

사회주의소유를 보호하고 증대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공민의 신성하고 영예로운 법적의무이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를 침해한 행위는 나라의 경제적기초를 좀먹고 그 위력을 약화시키며 인민생활향상을 저해한 엄중한 범죄이다.

사회주의소유를 침해한 범죄는 국가재산훔친 죄와 국가재산파손죄로 갈라볼수 있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를 침해한 범죄란 범죄자가 자기의 개인리기주의적목적을 위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비법적으로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거나 자기의 재산처럼 처리한 행위

를 말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를 침해한 범죄의 특징은 사회주의소유의 재산을 개인소유의 재산으로 비법적으로 전환시킨데 있으며 그 전환방법이 훔치기, 빼앗기, 속여먹기, 떼먹기, 강도, 공동탐오와 같은 도적질이라는데 있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를 침해한 범죄에는 국가재산훔친 죄, 국가재산빼앗은 죄, 국가재산속여가진 죄, 국가재산횡령죄, 국가재산공동탐오죄, 국가재산강도죄가 있다.

국가재산훔친 죄란 다른 사람이 보관관리하고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도적질하는 행위를 말한다.

훔친죄의 전형적인 특징은 범죄자가 해당 재산을 보관관리하고있는 사람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은밀히 그 행위를 감행하는데 있다.

국가재산빼앗은 죄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 보는데서 가지고 달아나거나 빼앗아가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범죄는 다른 사람이 보는데서 공공연하게 그 행위를 수행하는것이다.

국가재산속여가진 죄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을 속이거나 자기를 믿는것을 악용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떼먹는 행위를 말한다.

례를 들어 어떤자가 전표를 위조하여 상품을 가졌거나 상품을 사줄 생각이 없으면서도 사주겠다고 속이고 국가기관의 돈을 받아 소비하였다면 속여가진 죄로 된다. 그러나 어떤자가 상품판매원을 유인하여 딴데로 주의를 돌리게 하고 그 기회에 상품을 가졌거나 전기검열원으로 가장하고 판매원의 신임을 얻어 상점안을 다니는 기회에 상품을 가졌다면 속여가진 죄로 되는것이 아니라 훔친 죄로 된다.

국가재산횡령죄란 직무를 맡고있거나 일정한 의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자기가 보관관리하고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떼먹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사람이 보관관리하고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이 아니라 자기가 보관관리하고있는 재산을 바로 자기자신이 떼먹는것

이 횡령죄의 특징이다.

국가재산공동탐오죄란 《합법적》 또는 《사업보장》과 같은 구실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나누어먹거나 공동으로 탕진한 행위를 말한다.

국가재산강도죄란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 행위를 말한다.

강도죄는 재산략취중에서도 가장 엄중하고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이다. 그것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침해한다는데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수 있기때문이다.

국가재산파손죄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되는대로 다루거나 리기적인 목적밑에 파괴, 손상시켜 사용할수 없게 하거나 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치였거나 파손시킨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6절.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현상들과의 법적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당과 국가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현상들과 강한 법적투쟁을 벌려야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와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튼튼히 고수하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에는 외국화폐매매죄, 상

적행위죄, 밀수죄, 오작품, 불합격품생산죄, 국가건물구조변경죄, 국가건물을 보수하지 않은 죄, 농업생산과학기술위반죄, 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위반죄 등이 있다.

외국화폐매매죄란 공화국은행에서 바꿀수 있는 외국화폐를 은행에서 바꾸지 않고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사이에서로 팔고사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범죄는 외화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관리를 문란시킬뿐아니라 밀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정적현상을 낳는다. 나아가서는 공화국화폐의 불안정성을 조성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우리 국가는 외화를 개별적으로 팔고사는 행위를 금지시키며 오직 은행을 통하여서만 바꿀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철저히 통제하고있다.

외국화폐를 팔고사는 행위는 본질에 있어서 돈장사이다.

상적행위죄란 다른 사람의 리익을 희생시켜 자기의 리익을 채우려는 목적밑에 물건을 비법적으로 팔고사는 행위를 말한다.

상적행위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행위이다. 자기는 품을 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서 리익을 얻는 행위가 바로 암거래행위이다.

상적행위에는 개인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상적행위가 있다.

상적행위가 성행하면 사회주의사회발전을 좀먹고 나아가서 사회주의제도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상적행위에는 되거리행위, 거간행위, 국정가격보다 비싸게 팔아먹는 행위 등이 있다.

밀수죄란 리기적목적밑에 비법적으로 물건을 은밀히 다른 나라에 내가거나 들여온 행위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승인밑에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그리고 개인들이 대외무역을 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밀수행위는 법적승인없이 물건을 다른 나라로 내가거나 들여오는 행위로서 우리 나라 대외무역발전에 저해를 준다.

오작품, 불합격품생산죄란 제품생산과 관련한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제품규격을 어겨 오작품 또는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불합격품인줄 알면서도 정품으로 통과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품생산에서 오작품, 불합격품을 낸다면 막대한 로력과 자재

가 랑비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

국가건물구조변경죄와 국가건물을 보수하지 않은 죄란 국가건물 또는 공공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보수하지 않아 건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건물구조를 마음대로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이르는 곳마다에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과 시설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이 귀중한 나라의 재부들은 인민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에 이바지할뿐아니라 대대손손 물려가면서 써야 할 귀중한 밑천이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재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며 원상대로 보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건물과 공공시설물을 마음대로 파괴하거나 제때에 보수하지 않아 못쓰게 만들어 그 수명을 짧게 하였거나 건물구조를 마음대로 뜯어고치는것과 같은 행위들은 모두 범죄로 된다.

농업생산과학기술공정위반죄란 농업생산을 과학기술공정에 기초하여 하지 않고 경험을 내세우면서 되는대로 하여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이 범죄는 주체농법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도록 하며 알곡생산을 늘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다.

누구도 주체농법의 요구와 어긋나게 농사를 지을수 없으며 농업생산의 과학기술공정을 마음대로 어길수 없다.

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위반죄란 위생방역 또는 사양관리에 대한 규정을 어겨 집짐승을 죽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짐승에 대한 수의방역사업과 사양관리사업을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축산물생산을 늘일수 없으며 인민들에게 풍족한 식생활을 마련해주려는 우리 당의 정책을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행정처벌로서 철직, 강직,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 로동교양, 무보수로동처벌을 주며 엄중한 경우에는 형벌로서 로동단련형 또는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학생청년들은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그를 침해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제7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세우는것은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나라의 물질적재부를 늘이고 조국강토를 아름답고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망성있게 꾸려나갈수 있으며 국토의 자연부원과 자연환경을 적극 보호할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하고 깐지게 하도록 교양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에 대한 법규범과 규정들을 어긴 현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다스려야 합니다.》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에는 토지람용, 페경죄, 토지류실죄, 지하자원개발 및 채굴질서위반죄, 파실산불죄, 산림람도벌죄, 수산 및 동식물자원보호관리질서위반죄, 환경보호질서위반죄, 하천보호관리질서위반죄, 도로관리질서위반죄가 있다.

토지람용, 페경죄, 토지류실죄란 우선 법적승인이 없이 토지리용에 관한 법규범을 어기면서 농업용토지를 주택 또는 공장건물부지로 리용하였거나 기타 다른데 리용한 행위, 토지를 아주 버렸거나 묵인것과 같은 행위, 토지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많은 토지를 류실시킨 행위이다.

토지는 농업생산에서 제일 중요하다. 산이 많고 농경지가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토지를 잘 리용하고 보호하며 관리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람용하거나 페경, 류실시키는것은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는 범죄행위이다.

지하자원개발 및 채굴질서위반죄란 지하자원을 되는대로 캐거나 굴을 망탕 뚫는 행위를 말한다.

광석생산에서 품위가 낮은것은 버리고 높은것만 골라가면서 캐거나 석탄생산에서 폭이 좁은 탄맥은 줴버리고 폭이 넓은 탄맥만을 골라서 캔다면 수많은 지하자원을 버리여 그것을 효과있게 리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굴을 망탕 뚫기때문에 로동

재해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날수 있는 요소의 하나로 된다. 그러므로 지하자원을 되는대로 캐거나 굴을 망탕 뚫는 일이 없어야 한다.

파실산불죄란 산불을 일으켜 산림자원에 많은 손실을 준 행위를 말한다.

산불이 일어나면 많은 나무를 잃어버리며 산림자원에 큰 손실을 주게 된다. 우리 인민이 애써 가꾼 산림을 불태우는 행위는 엄중한 범죄로 된다.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과 인민생활에는 많은 나무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산림을 불태우는 죄는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저해를 주는 위험한 행위이다.

학생청소년들은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장난을 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망탕 불을 놓는 현상을 보면 강한 투쟁을 벌려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람도벌죄란 산판의 나무를 허가없이 망탕 찍거나 마음대로 산을 개간하여 산림자원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산판의 나무를 허가없이 망탕 찍으면 산림자원이 제대로 늘어날수 없으며 나아가서 큰물피해를 일으킬수 있다. 이것은 나라의 공해현상을 막고 수력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인민경제와 근로자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서 큰 위험으로 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산림을 람도벌하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처벌한다.

수산 및 동식물자원보호관리질서위반죄란 법을 어기고 물고기와 리로운 동식물을 망탕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고기와 리로운 동식물보호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문명하게 꾸리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물고기와 리로운 동식물을 잘 보호관리하지 않는것은 결국 나라를 사랑할줄 모르고 인민을 사랑할줄 모르는 애국, 애민의 마음이 없는 표현이며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로 된다.

이 범죄는 허가없이 잡지 못하게 되여있는 물고기와 동물을 잡았거나 식물을 채취한 행위이다. 실례로 노루를 비롯한 리로운 산짐승이나 클락새와 같이 보호하는 새를 잡은 경우 그리고 산삼과 같이 보호하는 식물을 마음대로 채취한 경우를 들수 있다.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허가없이도 잡거나 채취할수 있는 동식

물이라고 하더라도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잡았거나 채취한 경우에는 범죄로 된다. 실례로 알쓸이기간에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여있는데도 고기를 잡거나 어떤 장소에서는 낚시질이 금지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는 경우를 들수 있다.

또한 허가를 받든 받지 않았든 관계없이 금지된 방법으로 동식물자원을 잡았거나 채취한 행위도 범죄로 된다. 례하면 폭발물이나 유독성물질, 전기를 리용하여 잡는 경우를 들수 있다.

환경보호질서위반죄란 환경보호에 대한 법규범을 어기고 바다와 강하천 또는 농경지에 해로운 물질을 흘러보냈거나 유독가스를 방출시킨것과 같은 공해현상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와 환경을 보호하는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키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바다와 강하천 또는 농경지에 해로운 물질을 흘러보냈거나 유독성가스를 마구 방출시키는것은 농업생산이나 수산자원에 큰 영향을 줄뿐아니라 중요하게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는 위험한 행위로서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된다.

하천관리질서위반죄란 하천보호에 관한 법규범을 어기고 동뚝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하천보호림을 마음대로 찍는 행위를 말한다.

하천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농경지를 비롯하여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큰물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하천관리사업을 잘할 대신 오히려 동뚝을 못쓰게 만들었거나 하천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파괴, 손상시켰거나 하천보호림을 찍는 행위들은 하천보호사업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국토 및 환경보호관리질서를 침해한자에게는 행정처벌로서 철직, 강직,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주며 엄중한 경우에는 형벌로서 로동단련형 또는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학생청년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훌륭한 애국

자로 준비하기 위하여 나라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아끼고 더 잘 관리하는 애국심을 키워나가야 한다.

제8절.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쥐고있는 사회주의국가는 전복된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할뿐만아니라 모든 공민들이 로동법령을 엄격히 지키도록 강하게 통제하여야 자기의 독재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거창한 투쟁은 수백만 근로자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자각적인 노력에 의해서 진행된다. 로동행정질서를 바로세우는것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조건의 하나이다.

로동행정규률을 잘 지키지 않으면 여러가지 로동재해가 발생할수 있으며 로동에서 능률을 최대한으로 낼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행정규률을 지키지 않는 행위들은 위험한 행위로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에는 로동안전질서위반죄, 교통사고죄, 녀성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킨 죄 등이 있다.

로동안전질서위반죄란 로동안전질서와 작업규률을 위반하여 인명피해, 폭발, 화재 등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행위를 말한다.

로동안전질서와 규률을 엄격히 지키는것은 사건사고를 미리 막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로동생산능률과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안전질서와 작업규률을 위반한 현상은 로동재해를 발생시키고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할수 없게 한다. 또한 안일성과 해이성, 무규률성을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와 낡은 습성을 조장한다.

로동안전질서와 작업규률을 어긴 행위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불이 엄금되여있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작업과정에 잠을 자거나 자의로 리탈하거나 술을 마시고 작업하는 행위, 작업시작시간이 지났는데도 작업을 하지 않는 행위들이다.

교통사고죄란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어겨 인명피해나 그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행위를 말한다.

교통안전에 대한 법규범의 요구를 준수하는것은 인명피해를 비롯한 자동차, 뜨락또르, 뻐스와 같은 륜전기재의 사고를 미리막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사람들속에서는 자동차속도를 위반하는 현상, 적재함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차를 모는 현상, 차의 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짐을 싣거나 려객들을 태우는 현상 등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할뿐아니라 나아가서 나라의 대외적권위까지도 훼손시키는 위법으로 된다.

녀성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킨 죄란 녀성들에게 금지된 직종의 로동을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는 녀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수 없으며 젖먹이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로동을 시킬수 없다고 규정되여있다.

녀성들의 로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그들이 사회에 적극 진출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하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국가는 녀성들에게 남자와 꼭같은 권리를 주고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단축, 신체적특성에 맞는 로동직종배치 등 일련의 시책을 통하여 녀성들을 특별히 보호하고있으며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과 대책들을 취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녀성들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킨다면 그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녀성보호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로 된다.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한자에게는 행정처벌로서 강직,철직, 자격정지 및 박탈,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주며 엄중한 경우에는 형벌로서 로동단련형 또는 로동교화형에 처하게 된다.

학생청년들은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면 로동행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 한건의 사건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절.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건설에서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고 로동계급의 리념과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며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선군시대의 혁명적문화수준을 가진 참다운 인간으로 만들며 우리의 사상문화를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로 만드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고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 부르죠아사상과 생활양식을 우리 내부에 퍼뜨리기 위해 온갖 모략책동을 다 감행하고있다.

공화국형법에는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고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며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와의 투쟁을 강하게 벌릴것을 규제하고있다.

형법에서 규제하고있는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는 퇴페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퇴페적인 행위를 한 죄, 적대방송청취, 유인물보관, 류포죄,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파손죄, 력사유적도굴죄, 력사유물밀수, 밀매죄, 의료질서를 침해한 범죄, 가짜의약품, 식료품 제조, 판매죄, 비법마약사용죄 등이 있다.

퇴페적인 문화반입, 류포죄란 퇴페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담은 음악, 춤, 도서, 사진, 록화물, 전자다매체 같은것을 끌어들이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퇴페적이고 색정적인 음악, 춤, 도서, 사진, 록화물, 전자다매체 같은것을 다른 나라들에서 끌어들이거나 복사, 촬영, 록음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워주거나 듣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적들을 도와주는 행위로, 반역행위로 보고 무자비하게 징벌한다.

퇴페적인 행위를 한 죄란 퇴페적이고 색정적인 음악, 춤, 그림, 도서, 록화물, 전자다매체 같은것을 보고 들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오늘 사회주의민족문화와 사회주의생활양식이 꽃피고있는 우리 사회에서 퇴페적인 행위를 하는것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는 엄중한 범죄로 된다.

퇴페적이고 색정적인 매체들을 만들어 팔아먹는 행위와 함께 자기자신이 직접 퇴페적이고 색종적인 음악을 들었거나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류포죄와 행위죄를 병합하여 보다 엄중히 징벌한다.

적대방송청취, 유인물보관, 류포죄란 적들의 방송을 듣거나 적들의 삐라, 인쇄물, 록화물들을 모아들이거나 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 적들이 들여보낸 약이나 식료품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 적들은 우리 공화국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면서 별의별 어리석은 짓을 다하고있다.

만약 적들의 책동에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대할 대신 우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투쟁을 벌려야 한다.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파손죄란 고분을 비롯한 력사유적을 못쓰게 만들었거나 유적, 유물, 천연기념물들을 마스거나 뜯어 그 가치를 떨구게 한 행위를 말한다.

력사유적과 유물, 천연기념물들을 뜯어다 밀수, 밀매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파손시킨 죄와 밀수, 밀매한 죄를 병합하여 보다 엄중히 징벌한다.

력사유적도굴죄란 국가가 보관, 관리하고있는 고분을 도굴한 행위를 말한다.

이 범죄에서는 도굴한 그 자체도 범죄로 되지만 도굴한 유물을 밀수, 밀매하였을 때에는 도굴죄와 밀수, 밀매죄를 병합하여 징벌하며 도굴한 유물을 못쓰게 만들었을 때에는 도굴죄와 파손죄를 병합하여 징벌한다.

력사유적밀수, 밀매죄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유적이나 유물을 밀수하거나 밀매한 행위를 말한다.

이 범죄에서는 력사유물을 판 사람은 물론 산 사람도 다같이 징벌한다.

의료질서를 침해한 범죄란 의료일군이 특별한 리유가 없이 치

료나 왕진을 거부하여 환자를 죽게 한 행위, 의료일군이 환자에 대한 치료와 간호를 책임적으로 하지 않아 환자의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환자를 죽게 한 행위, 의료일군이 아닌 자 또는 의료일군이라 하더라도 병원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를 죽게 하였거나 건강에 엄중한 해를 준 행위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치료거부죄, 의료사고죄, 비법의료죄 등이 의료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속한다.

의료일군이 근무시간내에 돈이나 물건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뢰물죄와 의료사고죄를 병합한다.

가짜의약품, 식료품제조, 판매죄란 리기적목적에서 가짜약이나 식료품을 만들었거나 가짜라는것을 알면서 그것을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이 범죄는 행위의 엄중성으로 하여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위자체로서 범죄로 되며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병에 걸리게 한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다 엄중히 징벌한다.

비법마약사용죄란 비법적으로 마약을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한 행위를 말한다.

아편을 심어 자체로 마약을 제조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비법재배, 제조죄와 비법사용죄를 병합하며 마약을 밀수하여 다른 사람이 쓰게 하였거나 자기가 직접 쓴 경우에는 마약밀수죄와 마약사용죄를 병합한다.

마약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구자로 만들며 건전한 사회생활기풍을 흐리게 하는 독해물이다.

지금 적들은 마약과 같은 정신자극성물질들을 우리 나라에 들여보내여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게, 부패타락하게 만들고 건전한 사회생활기풍을 허물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 발동하여야 하는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지 않게 마약과 같은 정신자극성물질을 비법사용하는것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는 엄중한 범죄행위로 된다.

우리는 마약을 비롯한 정신자극성물질의 관리 및 통제에

서 엄격한 질서를 세우고 법적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벌려야 한다.

공화국형법에는 퇴페적인 행위를 한 죄, 력사유적밀수, 밀매죄, 마약제조, 사용, 밀수, 밀매죄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적책임을 지우게 되여있다.

즉 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로동단련형, 로동교화형 등 엄격한 처벌을 적용한다.

모든 학생들은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와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그것을 철저히 막고 사회주의사회의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기풍을 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0절.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은 행정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국가의 일반행정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반혁명분자들과 범죄자들의 책동을 미리막으며 사회주의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비롯한 온갖 범죄자들은 제도와 질서가 없고 규률이 문란한 곳에서 범죄행위를 감행하려고 책동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일반행정질서를 위반한 행위는 적들과 범죄자들을 도와주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한다.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에는 문서, 증명서의 비법처분, 위조사용죄, 증명서매매죄, 경비근무질서위반죄, 거짓신고 진술죄, 복수죄, 일반범죄은닉죄, 일반범죄불신고죄 등이 있다.

문서, 증명서의 비법처분, 위조사용죄란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훔쳐내여 쓰거나 없애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자기 증명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거나 또는 증명서를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증명서인줄 알면서 써먹는 행위를 말한다.(문서포함)

증명서는 공민의 영예로운 자격을 비롯하여 일련의 사실들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증명서를 훔쳐내거나 비법적으로 처리

또는 위조하거나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써먹는 경우에는 국가 및 사회질서유지에 엄중한 지장을 주며 인민들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그러므로 리기적인 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증명서를 훔쳐내거나 비법적으로 처리 또는 위조하였거나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처벌을 받는다.

증명서는 신분증, 신임장, 출장증명서, 려행증명서, 공민증, 시민증, 출생증 같은것들이다. 증명서를 훔치거나 비법적으로 없애버리는것, 남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위조하는것, 그 내용을 고치거나 위조한것을 써먹는것과 같은 모든 행위는 범죄로 된다.

증명서매매죄란 증명서를 팔았거나 사는 행위를 말한다. 증명서를 팔았거나 사는 행위는 범죄로 되여 로동단련형에 처하게 된다.

경비근무질서위반죄란 경비를 책임적으로 서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기관, 기업소경비근무에 동원된 사람들은 인원들과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보위하여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특히 경비대상들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와 영상작품들,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사적물들이 있으며 그를 목숨바쳐 지키는것이 경비를 서는 사람들의 첫째가는 의무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서면서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는 현상, 다른 사람들과 잡담을 하거나 근무장소를 리탈하는 현상 등 경비를 책임적으로 서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는다.

거짓신고죄란 범죄와 투쟁하는 전문기관에 범죄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형벌을 줄 정도가 되지 않는 위법사실을 형벌을 줄 정도로 될만큼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짓진술죄란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증인이 사건해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와 투쟁하는 전문기관에 정확히 말하여야 한다. 그래야 범죄와 투쟁하는 전문기관들이 범죄자를 제때에 적발하고 처리할수 있다.

범죄에 대하여 꾸며내거나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범죄사건을 옳바로 해결할수 없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줄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법적처벌을 받는다.

일반범죄은닉죄란 일반범죄자나 일반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는 범죄와 투쟁하는 전문기관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용납할수 없는 범죄이다.

일반범죄불신고죄란 일반범죄가 준비되고있거나 감행된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도 범죄와 투쟁하는 전문기관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며 범죄자들을 도와주는 위법행위로서 법적으로 처벌한다.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자에게는 행정처벌로서 경고, 엄중경고, 철직, 강직, 로동교양, 무보수로동처벌을 주며 엄중한 경우에는 형벌로서 로동단련형 또는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학생청년들은 일반행정질서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범죄가 감행되는것을 미리막으며 범죄가 감행되면 범죄자를 제때에 적발, 체포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는 사업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제11절.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 법규범과 규정을 어기면 그것은 나라의 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에 부정적영향과 혼란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사회주의사회를 유지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철저히 세워야《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사는 우리 인민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낡고 뒤떨어진 생활양식의 잔재들과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미리막고 온 사회에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확립할수 있다.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에는 불량자행위죄, 미성인범죄추긴 죄, 도박죄, 습득물횡령죄, 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학대팔시죄,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 략취물건거래죄 등이 있다.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범죄는 불량자행위이다.

불량자행위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여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불량자행위는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악습의 하나로서 근로자들 특히 새 세대 청년학생들의 건전한 발전에 나쁜 영향을 주며 퇴폐적인 부르죠아생활양식을 전파하는 극히 유해로운 범죄행위이다.

불량자행위는 불손하고 비도덕적이며 유치한 행위로서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녀성들을 회롱하거나 추잡한 발언과 행동을 하는 현상, 사람들앞에서 무례하고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현상, 걸핏하면 신경질을 내면서 사람들을 때리고 싸움하는 현상, 정당한 의견과 충고를 주는 사람에게 반항하거나 때리고 무섭게 행동하는 현상 등은 모두 불량자적행위들이다. 또한 술을 마시고 공공장소에 누워있거나 소란을 피우는것과 같은 추태를 부리는 현상, 대중봉사시설이나 려행수단을 리용하면서 줄에 끼여들거나 밀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현상, 뻐스표나 차표를 내지 않고 려객수단들을 리용하는 현상,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괴상망측하게 해가지고 다니는 현상들은 모두 불량자행위들이다.

불량자행위는 공부하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며 조직생활에 빠지기 좋아하는 청년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다.

불량자행위를 하는자들은 대체로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며 시대의 락오자로 굴러떨어져 시대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러므로 불량자행위가 나타나면 제때에 법적으로 처벌하는것은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세우는데서뿐아니라 나쁜 길로 가려는 청년들을 돌려세워 사회와 인민을 위한 참된 길을 걷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우리 청년들이 맡고있는 몫이 대단히 크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시절에 더 많은 일을 할 대신 사회와 집단의 분위기를 흐려놓고 시대의 투쟁대상으로 된다면 부모형제, 친척, 친우들앞에는 물론이고 당과 혁명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

을 저지르는것으로 된다.

학생청년들은 앞으로 우리 청년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시대의 맨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데서 청년영웅이 되고 혁신자가 되여야 한다.

제12절.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밖에서 사는 사람은 있을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국가의 법과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에 관한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온 사회에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가 확립되여 날마다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행복의 웃음꽃이 피여나게 된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하는 행위가 도저히 허용될수 없는 범죄로 된다.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가운데서 미성인범죄추긴죄란 미성인에게 범죄를 감행하도록 끄드기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하거나 불량자로 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성인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공민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성인은 17살부터라고 규정하고있다.

청소년들은 우리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새 세대들이며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들이다.

우리 조국의 앞날과 우리 혁명의 장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교양육성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청소년들을 옳게 교양육성할 대신에 오히려 나쁜 길에 들어서게 하는것은 그들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사회를 문란시키는 위험한 행위이다.

도박죄란 돈이나 물건을 걸고 주패와 같은 놀이수단들을 리용하여 따먹기를 하는 행위이다.

도박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악습의 하나로서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내는데도 엄중성이 있지만 일하기 싫어하고 공짜를 좋

아하는 낡은 사상잔재를 조장시키는것으로 하여 더욱 엄중한 범죄로 된다.

수단과 방법에는 관계없이 돈 또는 물건을 걸고 그것을 따먹기하면 도박죄로 되며 그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습득물횡령죄란 주은 돈이나 물건을 주인에게 찾아주지 않거나 해당 기관에 바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주은 돈이나 물건을 국가기관에 바치거나 주인을 찾아주는것은 누구나 응당 지켜야 할 도덕이며 고상한 품성으로 된다.

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들,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을 직접 돌보아주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자가 그들을 돌보아줄 대신에 내버려두어 사망하게 하거나 건강, 생명에 피해를 주는것과 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 로동을 할수 없는 사람들을 따뜻이 돌보아주며 보호하는것은 인민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응당 지켜야 할 고상한 도덕적의무이며 법적의무로 된다.

학대괄시죄란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거나 자기의 보호밑에 있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아줄 대신에 그들을 학대하고 괄시하여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자살에 이르게 한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는 허용될수 없는 해독적인 행위이다. 실례로 집에서 내쫓거나 일상적으로 욕설을 퍼부으며 괄시하거나 그밖에 구박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들수 있다.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란 죽을 위험에 처하여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방조를 주지 않거나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사람을 죽게 하거나 생명, 건강이 침해되는것과 같은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친혈육으로 되고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함께 일해나가고있다. 그러므로 위험에 처하게 된 사람을 보게 되면 누구나 한몸바쳐 구원하고있으며 동지들을 위해 자기를 서슴없이 바치는 아름다운 소

행들이 수없이 발현되고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 그런데 죽을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보고도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비도덕적이며 사회적으로 규탄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략취물건거래죄란 도적질한 물건이거나 빼앗은 물건이라는것을 알면서 그것을 사거나 팔아주는 행위를 말한다.

략취한 물건인줄 알면서도 그것을 사거나 팔아준 행위는 극도의 개인리기주의에 물젖은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도적놈을 도와주고 도적행위를 조장시키며 도적놈을 적발하는 전문기관의 사업을 방해하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패싸움죄란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하여 사회질서를 문란시킨 범죄이다.

패싸움이라 할 때에는 한두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패를 무어 싸우는것을 의미한다.

패싸움을 하여 살인이나 파괴와 같은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해당 범죄를 병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자는 로동교화형 또는 로동단련형에 처하게 된다.

학생청년들은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제13절.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허용될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사람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도저히 허용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에는 살인죄, 상해죄, 인격 및 인신상 자유를 침해한죄 등이 속한다.

살인죄에는 우선 탐욕, 질투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고의적살인죄와 사람을 죽일수 있다는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인 과실적살인죄가 있다.

살인죄에는 또한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와 범죄자의 공격을 물리치려다가 사람을 죽인 정당방위초과살인죄가 있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비법적으로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사람을 침해하는 범죄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범죄로 된다.

고의적살인죄란 범죄자가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죽인 행위를 말한다.

과실적살인죄란 범죄자가 다른 사람을 의식적으로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으나 자기의 행위가 다른 사람을 죽일수 있다는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행위를 말한다.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가한 폭행이나 심한 모욕과 욕설로 하여 갑자기 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초과살인죄란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인 행위를 말한다.

상해죄에는 고의적중상해죄와 고의적경상해죄 그리고 발작적격분에 의한 중상해죄, 정당방위초과중상해죄, 과실적중상해죄, 폭행죄가 있다.

고의적중상해죄는 우선 눈, 귀를 비롯한 몸의 외부와 내부의 기관들이 자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손상을 주었거나 얼굴에 지울수 없는 보기 흉한 허물을 남기는 상처를 입히고 정신병을 일으키게 한 행위이다.

고의적중상해죄는 또한 로동을 할수 없게 하거나 로동을 제대로 원만히 할수 없게 사람의 육체를 파괴시키는 행위이다.

고의적경상해죄는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 상처를 입히여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할수 없게 하거나 일정한 허물을 남길수 있게 한 행위를 말한다.

폭행죄는 사람을 때리는것과 같은 폭행을 가하는 행위이다.

사람을 때린것과 같은 폭행을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하며 이러한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하였거나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한자들은 로동교화형에 처하게 된다.

인격 및 인신상 자유를 침해한 죄에는 어린이훔친 죄, 유괴죄, 비법적인 자유구속죄, 모욕 및 명예훼손죄가 있다.

어린이훔친 죄란 어린이를 남들이 모르게 데리고가거나 일정한 장소에 내버려두는 행위를 말한다.

실례로 아이가 없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남의 아이를 몰래 훔쳐가는 행위는 어린이를 훔치거나 감춘 죄로 된다.

비법적인 자유구속죄란 비법적으로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떠나지 못하게 잡아두거나 가두어두며 강제적으로 끌고가거나 묶어놓는 등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욕 및 명예훼손죄란 무례한 언행과 행동, 글이나 그림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공민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자는 로동단련형 또는 로동교화형, 사형에 처하게 된다.

학생청년들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절.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도 인민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허용될수 없습니다. 인민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는 사람들사이에 불신을 조성하고 사회주의적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 적지 않은 저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그들의 개인적소비를 위한것으로서 그것은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 그리고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개인소유재산은 근로자들의 유족하고 문명하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위한 귀중한 밑천이며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할수 있게 하는 물질적기초이다.

그러므로 개인소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통제하는것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에는 개인재산훔친 죄, 개인재산빼앗은 죄, 개인재산속여가진 죄, 개인재산횡령죄, 개인재산강도죄, 개인재산고의적파괴죄가 있다.

개인재산훔친 죄란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은밀히 개인재산을 도적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점에서 공공연히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내는 빼앗은 죄와 자기가 보관관리하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적질해내는 횡령죄와 구별된다.

개인재산빼앗은 죄란 다른 사람의 개인재산을 다른 사람이 보는데서 가지고 뛰거나 빼앗아가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 죄는 다른 사람의 면전에서 공공연하게 개인재산을 비법적으로 가지는 범죄이다.

개인재산속여가진 죄란 재산임자 또는 보관관리자를 속이거나 자기를 믿는것을 악용하여 개인재산을 떼먹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재산속여가진 죄는 범죄자가 재산임자나 재산을 보관관리하고있는 사람을 속이거나 자신에 대한 신임을 악용하여 재산을 가지고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재산을 유유히 넘겨받은 행위이다. 실례로 어떤자가 돈을 떼먹을 생각으로 상품을 사주겠다고 돈을 받고서는 상품을 사주지 않고 그 돈을 떼먹은 경우이다.

개인재산횡령죄란 자기가 보관관리하고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여 자기의것으로 만든 행위를 말한다. 실례로 다른 사람이 일정한 기간 보관해달라거나 누구에게 전해달라고 한 재산을 자기 개인것으로 만들어 소비한 경우이다.

개인재산강도죄란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이나 협박을 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재산강도죄는 흉기를 리용하여 재산을 빼앗는것과 함께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고 사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이기때문에 개인재산을 략취하는 범죄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범죄이므로 유기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개인재산고의적파괴죄란 개인감정이나 격분과 같은것에 의하

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못쓰게 만들거나 그 가치를 많이 감소시킨 행위를 말한다.

개인소유의 재산을 침해한자는 로동단련형이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절. 범죄의 자발적중지와 자백, 고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범죄와 위법현상을 미리막을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인덕정치, 관대정책에 의하여 비록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솔직히 털어놓은자에 대해서는 관대히 용서하거나 형벌을 적게 주고있다.

우리 공화국형법은 범죄를 범한 사람들을 버리는것이 아니라 교양개조하여 혁명대오에 세우는 참다운 인민의 법이다. 그러므로 공화국형법에서는 범죄를 감행하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행위를 그만두는 사람과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국가앞에 스스로 털어놓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한다.

범죄와 위법현상을 미리막을데 대한 당의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범죄의 자발적중지제도를 설정하는것이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범죄의 자발적중지제도를 설정한 목적은 이미 시작한 범죄활동을 중도에서 포기하도록 자극을 줌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엄중한 범죄를 방지하자는데 있다.

또한 엄중한 범죄의 길로 더욱 깊이 들어갈수 있는 사람들을 한사람이라도 건져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범죄의 자발적중지란 범죄를 준비하거나 범죄를 계속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도중에 스스로 완전히 그만두는것을 말한다.

자발적중지는 형사책임문제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

범죄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거나 가볍게 지운다. 때문에 자발적중지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확증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범죄가 자발적으로 중지되였다는것이 인정되자면 우선 범죄활

동을 시작한자가 그것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중도에서 완전히 자발적으로 포기하여야 한다.

범죄활동을 시작한자가 다른 조건으로 하여 범죄를 사실상 끝까지 할수 없다는것을 알고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발적중지로 인정될수 없다. 실례를 들어 도적놈이 회계실에 있는 돈을 훔치려고 금고를 열었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나와야 자발적중지로 인정된다. 그렇지 않고 준비해가지고 간 열쇠를 가지고는 도저히 금고문을 열수 없기때문에 그만두었거나 문을 연 후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기때문에 돈을 훔치지 못했다든가 돈이 없었기때문에 그냥 나왔을 경우라면 그것은 자발적중지로 인정될수 없다.

범죄가 자발적으로 중지되였다는것이 인정되자면 또한 범죄를 자발적으로 중지하였다는것을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마음속으로만 범죄를 감행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것만으로는 자발적중지로 인정될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찾아가 자기가 범죄를 감행하려고 하였다는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다시는 범죄를 감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행동으로 표현되여야 한다.

자발적으로 범죄행위를 중지한 범죄에 대하여서는 법적으로 그 어떤 처벌도 주지 않는다.

자백이나 고백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법적처벌을 적게 준다.

자백이란 법기관의 조사, 검열, 감시, 수사가 있기 전에 자기의 죄행을 스스로 법기관에 찾아와 솔직히 털어놓는것을 말한다.

고백이란 법기관의 조사, 검열, 감시, 수사하는 과정에 자기의 죄행을 뉘우치고 범죄를 솔직하게 말하거나 인정하는것을 말한다.

자백이나 고백은 범죄를 다 저지른 다음에 솔직히 자기 죄행을 털어놓는다는 점에서 범죄를 다 저지르기 전에 자기 죄행을 털어놓는 범죄의 자발적중지와 구별된다.

이러한 자백이나 고백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것으로 되기때문에 앞으로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수 있다고 믿고 형벌을 적게 준다.

조그마한 잘못도 남들이 모른다고 숨기면 그것이 버릇처럼 되여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며 나중에는 위험한 구렁텅이에 빠져

들게 된다.

누구나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숨기지 말고 조직과 집단, 부모들과 법앞에 솔직히 털어놓는 깨끗한 마음을 지녀야 하며 그것을 대담하게 고쳐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도덕과 법(중학교 제5학년용)

(2판)

집 필 박사 부교수 김경숙,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완선,
김천일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최동녀

장 정 류명심

콤퓨터편성 황옥별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교 정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2판인쇄 주체 년 월 일

1판발행 주체94(2005)년 5월 6일

2판발행 년 월 일

교-

값 원